



# 時評塔



2014년 4월 15일 발행

서울대학교醫科大學美洲同窓會 發行

제41권 2호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maa@yahoo.com www.snucmaa.us

발행인: 金晟煥  
편집인: 金炳哲

편집위원: 徐亮 李元澤  
徐仁錫

자문위원: 盧鎔冕 李熙景  
許善行

## 제31차 학술대회에 초대합니다

### SNUCMAA of NA 31th Annual Scientific Convention and Cruise Program May 16 ~ 23, 2014 7 Nights Alaska Sawyer Glacier by Celebrity Solstice

#### May 16 (Fri.)

11:00 -16:00 Check-in/ Registration

#### May 17 (Sat.)

7:00-9:00 Breakfast and guide

9:00-9:05 Dr. Sungwhan Kim (President): Welcome to the Scientific Session

9:05-9:10 Dr. Yoogoo Kang: Opening remarks

#### Moderator: Dr. Yoogoo Kang

9:10-9:40 Dr. In Suk Seo: Personalized (Customized) Medicine

9:40-10:10 Dr. Sechin Cho: Next Generation DNA Sequencing and Its Application in Clinical Medicine.

10:10-10:30 Coffee break

#### Moderator: Dr. In Suk Seo

10:30-11:00 Dr. Young Joon Ahn: Current Surgical Management of Pancreatic Cancer

11:00-11:30 Dr. Johng S. Rhim: African American Prostate Cancer: Advances and Challenges

11:30-12:00 Dr. Chan H. Park: Statistical Analysis on the Survival of Stomach Cancer: Substantiating Inferior Survival in the US. Why and How to Overcome This Disparity?

12:00-12:30 Dr. Yong-Sung, Choi: The On-Going War Against Cancer

12:30-14:00 Lunch

#### Moderator: Dr. Johng S Rhim

14:00-14:30 Dr. Byung-Hee Oh: New Hypertension Guidelines (JNC 8): Will it Change the Clinical Practice

14:30-15:00 Dr. Kyung Bae Chon: Autism Spectrum Disorders: Overview

15:00-16:00 SNUCMAA of NA Delegate Meeting

16:00-17:30 SNUCMAA of NA Alumni Meeting

May 18 (Sun.) Ketchikan Excursion, entertainment

May 19 (Mon.) Tracy Arm Fjord Excursion, entertainment

May 20 (Tue.) Skagway Excursion, entertainment

#### May 21 (Wed.)

#### Moderator: Dr. Changku Kurtis Kim

9:00-9:30 Dr. Thad Taehyung Ghim: Healthcare System in Two Countries: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9:30-10:00 Dr. Inkoo Kim: Evolution of Seoul Asan Medical Center

10:00-10:30 Myung-Hee Chung: Development of a Therapeutic (anti-inflammatory and anti-allergic) from a Toxicant (8-hydroxydeoxyguanosine, an oxidatively modified mutagenic DNA adduct)

10:30-10:50 Coffee break

#### Moderator: Dr. Myung-Hee Chung

10:50-11:20 Dr. Yung-Tae Kim: Prevalence and Risk Factor of Degenerative Disease of Adjacent Segment after Anterior Cervical Arthrodesis

11:20-11:50 Dr. Edward Hitack Jeon, M.D.: Endovascular Hypothermia After Cardiac Arrest: A Community Hospital Experi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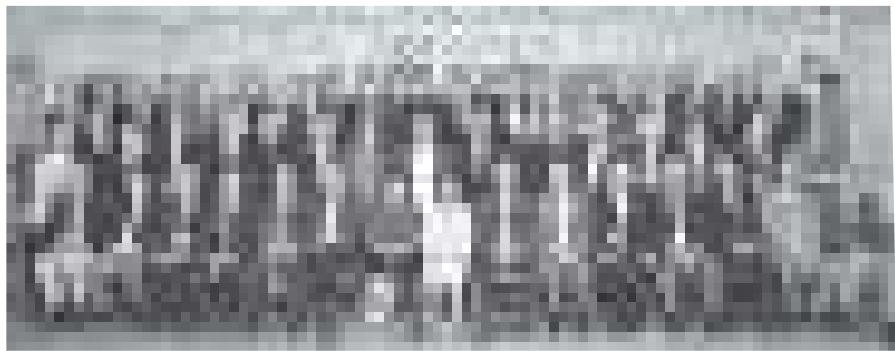
11:50-12:20 Dr. Changku Kurtis Kim: Two Advances in Hospital Clinical Microbiology

12:20-12:30 Dr. Yoogoo Kang: Closing remarks

May 22 (Thu.) Victoria, British Columbia

May 23 (Fri.) Seattle, WA

# 남가주지부 신년하례식 성황리 마쳐



2014년 1월 25일(토) 오후 6시부터 로스앤젤레스의 옥스포드 플라자 호텔에서 178명이 참석한 남가주 동창회 신년하례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어 많은 동문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특히 샌디에고 지역 동문들이 버스를 대절하여 참석하였으며, 1948년 졸업 김지익 고영철 대선배들을 위시해서 졸업 환갑을 넘긴 분들이 십 여명이 자리를 같이하여 노익장을 과시했다.

1부는 최광희(76)동문의 깔끔한 사회와 참석인원 전원에게 돌아가기식 소개가 있었으며, 2부는 '라디오 서울' 이영돈 사회의 재치있는 진행으로 9시 반까지 시간가는줄 몰랐다. 통상 다른 파티에 가보면 예정시간부터 하나 둘씩 나타나기 마련인데 우리 서울의대 출신들은 6시까지 이미 반수 이상이 참석해 있었다. 그만큼 기다려 왔다는 뜻이리라.

여흥으로 말뚝 해를 맞이해서 청마 대신 미끈한 갈색 인마들이 보여준 말뚝 짝 춤을 보고 날씬한 허리에 평퍼짐한 엉덩이가 어찌하면 그리 닳았는지 - 이덕송(60)동문의 덕담마냥 "많은 말이 필요 없네" "그래도 할 말은 해야지요" "어느 말을 해야할지" - 상상의 날개를 펴보기도 했을 것이다.

남가주동창회는 지난 2년간 열심히 일한 전경배(75) 동문의 바톤을 이어받아 금년에는 최광희(76) 동문의 영도하에 차민영(82), 안상훈(94) 두 동문이 부회장, 조형기(92) 동문이 총무, 김동훈(77) 동문이 재무로 수고하기로 했으며 이사장은 전희택(64) 동문이 계속 봉사하기로 했다. - 이원택(71) 보고

## 강신호 명예회장 미수연 가져



강신호(52, 동아쏘시오그룹 회장) 모국동창회 명예회장이 지난 3월 8일 88번째 생일을 맞아 조출한 미수연(未壽宴)을 가졌다. 이날 행사는 웨스턴조선호텔에서 열렸으며, 동아쏘시오그룹의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 출범 1주년 행사를 겸해 가족과 지인 외에 동아쏘시오그룹 임직원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미수연은 '강신호 회장 미수연, 그리고 동아쏘시오홀딩스와 행복한 동행'이라는 주제로 유명 샌드아트 작가인 김하준씨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김원배 동아에스티 부회장의 환영사와 강신호 회장의 일생을 담은 동영상 방영 강신호 회장으로 진행됐는데 가족과 임직원 등 하객들은 만찬을 함께하며 미수연 맞은 강신호 회장의 건강을 기원했다.

강신호 명예회장은 1952년 모교를 졸업한 뒤 1959년 동아제약에 입사했으며, 1975년 사장에 취임해 동아제약을 제약업계 1위로 올려놓는데 큰 열정을 바쳐왔다. 특히 1983년 3월부터 1955년 3월까지 모교 동창회장(24~29대)을 맡아 동창회 발전을 중흥시켰으며, 현재도 합춘동아의학상을 후원해주는 등 동창회의 여러가지 사업과, 그리고 매년 개최되는 미주동창회 학술대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는 깊은 애정을 쏟고 있다.

## 고 오수남 박사님을 기리면서

삼가 오수남 박사님의 소천을 애도 합니다.

고인은 지난 2월 15일 새벽 2시 15분에 LA 있는 자택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유가족으로는 부인과 3남 1녀의 자녀를 두고 있는 다복한 가정을 이루셨습니다. 그는 이북 진남포 출신이며 치과대학과 의과대학을 졸업 후 두 가지 면허를 소지하고 의료 사업에 종사 하였습니다.

서울 의대 졸업 20주년 기념사진첩에 그는 "부족한 나의 일생을 나 나름대로 있는 힘을 다하여 살아간다. 내일이 또 있으니까 뚜렷한 목표만 바라보면서 꾸준히 산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한국에서 1965-1968년에 남미 파라과이로 이민후 1968년부터 금년까지 미국 LA에서 가족과 더불어 단란한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는 본인과는 의대 동기생이지만 연세가 우리보다 15세나 위여서 늘 존경하면서 지내 왔습니다. 연말이 되어 문안서신을 보내면 꼭 제일 먼저 자필로 소상하게 회신하여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곳 섬기는 교회에서 장로로 피택되어 불우한 이웃들에게 의료로써 구원사업에 헌신 봉사하면서 말년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향년 100세의 은혜의 생을 누리시고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제위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김웅식(55) 배

## 편집위원회 회의 초록

이번 출판위원회 시계탑 편집모임은 서울의대 미주동창회 뉴욕지부 이사회 모임이 있었던 3월 25일 저녁 여섯시, New Jersey Fort Lee에 있는 품림식당에서 있었다.

이번 회의 원고 편집과 교정을 마치고 몇가지 안전에 대해 토의한 후 서울의대 뉴욕지부 이사회에 합석했다.

1. 시계탑 40주년 기념행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합의를 했다. 첫째, 시계탑 40주년이 금년 6월 말이므로 7월호 시계탑에 특집을 게재한다. 둘째, 40주년 기념행사는 되도록 많은 동문들이 참석 할 수 있도록, 2015년 Annual Convention 때 겸해서 하기로 한다.

2. 현 출판위원장(시계탑 편집장) 김병석 동문의 사표를 6월 30일부로 수려하고, 현재 및 차기 회장단은 차기 편집 위원장을 그전까지 선임하기로 결정했다. 편집장 김병석(59)

## 세상을 바꾸는 나눔의 시작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보고

모금현황 (2013년 12월 말) 총액 \$3,161,551

2010년 \$354,470 / 2011년 \$514,180 / 2012년 \$1,269,608 / 2013년 \$1,023,293

1. 오세경 박사 장학금- 약대를 졸업하고 보스톤에 계시는 오세경 박사님이 \$40,000을 기부 하셨습니다. 현재 발전기금에는 \$210,000가 적립되어 있어 \$250,000이 되며 기금의 수입금으로 약대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 된다. 오 박사는 조지아대학에서 생화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보스톤 의대 부교수, 씨바 코넬회사 선임연구원, MIT 공대 선임연구원을 역임하였다. 부군인 Shklar 박사는 하버드 치대 학장을 역임하였다.

2. 박종수(수의대 58) 토지 기증- 이미 \$100,000 출연 박종수 장학기금을 설정한 박종수 박사는 한국 경기도 시흥에 소재한 시가 23억원 상당의 토지를 모교 서울대에 기부 했다. 약 8천평에 이르는 이 대지에는 서울대종합연구소 건물이 건립될 예정이다.

3. 구재훈(의대 74) 임자은(의대 74) 부부 - 구재훈, 임자은 의대 동문 부부는 의대 졸업 40주년 기념을 기념해 지원금으로 \$20,000를 기증 했다.

4. 광노섭(문리대 49) 동문- 문리대 수학과 도서구입비로 \$10,000 기증했다.

5. 서울대학교 중앙 도서관 증축 모금: 반기문 (문리대 63) UN 사무총장 \$5,000 / 이만택(의대 58) \$3,000 / 이홍표(의대 64) \$1,000 / 강창욱(의대 61) \$1,000 / 최인갑(공대 57) \$1,000 / 김자역(의대 75) \$1,000 / 오태요(의대 62) 김명자(문리대 62) 부부 \$5,000 / 김진우(의대 64) 김진승(문리대 53) 김진락 (법대 56) \$10,000 / 정동구(공대 57) \$5,000

### 각종 기금(Fund)현황 (\$100,000 이상 약정 또는 출연으로 설정됨)

익명 수의대 동물병원 및 생물과학동 건축기금 \$400,000 출연 / 김기태-노정욱 장학기금(의대 58) \$500,000 출연 / 김의신(의대 66) 핵의학과 학술기금 \$250,000 출연 / 김용재 장학기금(의대 66) \$400,000 출연(\$ 500,000 약정) / 박종수 수의대장학기금 \$75,000 출연 (\$100,000 약정) / 김영석 아세아연구소 지원기금 \$50,000 출연 (\$100,000 약정) / 이병준(상대) 법안화지원기금 \$100,000 출연 / 김기봉(공대) 신경은(공대) 네교수 장학기금 \$90,000 출연 / 이홍표(의대 64) 순환기내과 연구 및 교육기금 \$300,000 출연 / 익명 (의대) 이안나 장학기금 \$50,000 출연 (\$100,000 약정) / 수경 희망 장학기금 \$50,000 출연 (\$100,000 약정) / 익명(의대) 장학기금(생명보험 유증) \$200,000 약정 / Goldman Sachs 장학기금 \$30,000 / Qualcomm 장학기금 \$100,000

### 2013년도 1학기 장학금 지급 현황 (\$237,000 지급)

1. Goldman Sachs 장학금: 학생당 \$5,000 20명 총 \$100,000 지급: 경영대학 경영학과 김유리, 이준석, 김상훈, 홍상훈, 최유민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최지욱, 천석우, 권양은, 김유영, 이용준 / 사회과학대학 사회복지학과 김지훈, 배정미, 조예상, 이다은, 장하영 / 공과대학 컴퓨터 공학부 이종민, 박지영, 전세린, 강동원, 강정현

2. Qualcomm 장학금 (8명 총 \$100,000 지급): 공과대학 대학원 이혜원, 장서우, 이용희 최정식, 배수현, 이철민, 강대호, 변성호

3. 수의과대학 박홍락 장학금 (\$2,500씩 2명): 김은영, 장윤정

4. 수의과대학 이병희 장학금 (\$2,500씩 2명): 김소연, 박지혜

5. 의과대학 김용재 장학금 (\$5,000씩 4명): 김정은, 이현택, 고경덕, 김영

6. 의과대학 김기태-노정욱 장학금(\$6,000씩 1명): 오문영

7. 의과대학 김은섭 장학금 (\$1,000씩): 박지원

### 2013년도 학술 연구 지원금

익명 수의대 동물병원 지원금 \$100,000 / 익명 수의대 생명공학 지원금 \$100,000 / 인문대 아세아 연구소 지원금 \$50,000 / 법대 환경 에너지법 정책 연구센터 \$30,000 / 김의신 의대 핵의학과 학술지원 \$5,000 / Estee Lauder 의대 피부과 학술지원 \$10,000 / 강창홍 의대 통증 연구지원금 \$7,500

### 서울대학교 미주재단 (Seoul National University Foundation, Inc.)

이사장: 이만택(의대 58) / 이사: 이승희(사대 61), 김형주(공대 78), 남익현(경영대 81) 이석원(사회대 81), 한종철(치대 62), 안지현(인문대 88) 재무: 이경림(상대 64) / 간사: 김인종 (농대 74), 이원재(상대 79), 김세영(생활과학대 06)

NY 본부: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Tel: 212-768-9144 E-mail: kenneth@klcpagroup.com

LA 사무소: 3699 Wilshire Blvd, # 97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35-1974 E-mail: America@snu.ac.kr

서울대학교 미주 재단은 IRS에 등록된 면세승인기관 (501-C-3)으로 기부금은 미국에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학금 및 영구기금을 기부해 주신 기증인들께 진심으로 감사 드립니다.

## 시계탑 원고모집 안내

### 모집하는 원고 내용

동기 및 동문동정, 지부소식, 제언과 비평, 수필, 산문, 기행문, 서평, 서간문, 독후감, 영화평, 시, 농담골목 유모어, 자녀들의 자랑 또는 소식. 특히 전공과목에 대한 새로운 의학 소식 등을 환영합니다. 종교적인 내용은 사양합니다.

### 보내시는 방법 및 보내실 곳

성명과 학년을 기재하여 주시고 관계되는 사진, 그림 첨부바랍니다. 아래한글, Word를 사용한 word text로는 2매 정도로 e-Mail, or CD로, 모든 산문은 원고지는 200자 12매 내외, 기행문은 23매 내외..

Damian B. Kim, M.D.  
141-30 33rd Avenue, Flushing, New York 11354  
Tel: (718) 460-5190 E-mail: dbkimmd@gmail.com

혼자 하는 여행의 묘미가 아니라면 관광은 동행자와 시간을 함께 보내는 데 큰 의미가 있다. 크루즈 경우에는 같은 배를 탄 운명이라는 깨달음이 주는 공감현상이 이만 저만이 아니다.

하물며 대학 동기동창끼리 7박8일로 한 배를 타다니, 우리는 부부동반으로 자신들을 내보이며 저마다 무고하다는 생존의 기쁨을 누린다. 게다가 종족보존 본능에 대한 책임감마저 바다에 깔리는 마음이다. 짝막하게 상대의 안부를 물은 후 으레 자식새끼들의 근황을 묻는다. 네 아들놈은 아직 장가 안 갔냐, 하기도 하면서.

‘서울의대 23회 졸업 45주년 기념 하와이 섬 일주 크루즈’라는 얇은 책자를 들고 2014년 1월 중순에 하와이에서 놀다 왔다. 서로 얼굴을 확인하기가 무섭게 우리는 근 반백 년 전 의식상태로 돌아간다. 그간 체중이 늘었다던가 머리 술이 적어졌던가 하는 놀라움도 잠시, 금세 야, 자, 하는 말이 튀어나온다. 우리는 함께 관광을 한다는 구실 아래 옛날을 재확인하고 과거와 현재를 재검토하는 시간여행에 오른다. ‘Pride of America’라는 8만톤이 넘는 유람선은 기실 우리가 얼떨결에 탑승한 타임머신이었다. 묘하다. 한 50년 전과 후의 엄청나게 다른 시대를 너끈히 공존시키는 우리의 정신력이다.

여럿이 모이는 경우에 남의 눈총을 받으며 늦게 나타나는 사람이 꼭 있기 마련이다. 내가 이번에는 그 역할을 맡았다. 우리 부부는 예정일보다 하루 전 오아후(Oahu) 섬에 도착해서 와이키키(Waikiki)에서 하루를 묵고 호놀룰루(Honolulu) 선창에 갔다. 탑승권을 컴퓨터로 인쇄해 오지 않아도 된다는 이메일을 받기도 했지만 뉴욕에서 혁혁대며 하와이까지 온 놈은 나 밖에 없었던 점도 단체행동에서 이탈하는데 막대한 공헌을 끼쳤다. 행사 준비 위원장 변영석 형이 좀 긴장된 표정으로 거대한 타임머신에서 선창



까지 마중을 나오고 나는 예의상 좀 미안해하는 눈빛을 짓는다.

모두가 반갑다. 옛날에도 그랬지만 신영찬은 나를 좋아하는 기색을 감추는 재능을 약간만 드러낸다. 캐빈에 짐을 풀자 이내 갑판으로 출두하라는 명령이 뜬다. 배가 침몰하는 긴급상황에서 살아남는 요령을 배우기 위함이다. 갑판에는 바람이 심하게 불고 수많은 유람객들이 웃고 떠들면서 지시 사항을 듣는 등 마는 등 한다. 위험천만한 삶을 무성의한 태도로 접수할 때 마음의 여유가 생겨난다. 문득 영화 타이타닉(Titanic)의 몇몇 장면이 떠오른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연상작용의 노예인 것을... 정신과 의사일 수록 그런 경향이 심하다. 오로지 심영수가 최고의 모범생답게 유사시의 행동방향을 정성껏 공부한다.

저녁을 먹을 때 미리 예정된 지정석에 앉는다. 심각한 논쟁을 피하고 가벼운 얘기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로 선내 레스토랑은 시끌벅적하다. 누군가 음식이 짜다고 나지막하게 투덜댄다. 그러나 포도주 맛은 감미롭다. 큰 하자가 없는 이상 음식 쯤이야 아무려면 어때냐. 저녁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일주일 동안 아침은 내내 뷔페다.

채식주의자 이지훈이 학생 때나 거의 다름 없는 자신의 몸매를 의식하면서 육류가 가득한 내 접시를 두루두루 살펴보는 아침 식사 시간.

저녁이면 사랑방에 모여서 되는 소리 안 되는 소리 떠들어대는 시간도 있다. 그때마다 주최측이 좌장을 임명한다. 첫날에 내가 노가리를 많이 짖

넉으로 신선한 하와이 공기를 마시며 하와이에서 지내는 박장부는 그런 학구적인 호기심이 전혀 없으리라는 것이 내 학설이다.

빅 아일랜드라 불리는 하와이 섬의 아카카(Akaka) 폭포도 샅샅이 훑어보았다. 아카카는 하와이 말로 협곡 혹은 갈라진 틈이라는 뜻. 폭포를 보면



는데 느닷없이 송인경이 뉴욕에서 사는 내가 부럽다며 억지를 부린다. 목요일이었는지 안병일이 의사가 가상적으로 경험하는 남녀관계를 설정해서 각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프로그램을 거행한다. 예쁘고 섹시한 간호사가 의사 가운 주머니에 자기 방에 오라는 쪽지를 넣었다나 어쩐다나. 유부남으로서 그녀를 만나러 가느냐 마느냐 하는 기로에 선 의사의 고민이 테마다. 나는 얼른 몰상식한 답변을 던지고 임용규는 냉철한 지성인의 기본자세를 유유히 유지한다. 와이프들이 눈을 가늘게 뜨고 듣는 참이라 다들 우물쭈물했지만 동기회장 김원동이 뭐라고 대답하자 모두 키득키득 웃는다. 그가 뭐라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 인생 경험이라는 것이, 예뻐, 이유는 떠오르지 않고 엉뚱한 결과만 기억 속에 딱 자리를 잡을 때가 부지기수다.

하루는 저녁에 가라오케를 하면서 놀았다. 마이크 소리가 나지 않는다. 사소한 즐거움은 늘 사소한 비극을 수반하고 고장이 난 문명의 이기는 대개 전문가의 손으로 고쳐지고 그 결과로 인하여 우리 삶의 질이 다시 높아진다. 옛날 가수 안다성의 미성을 뺀치는 최용의 구성진 목소리가 귓전에 울린다. 나는 남들이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연거푸 나훈아 노래만 부른다. 전덕성이 신앙심이 강한 이복 사투리를 섞어서 ”스(서)량아, 느(너)는 옛날부터 나훈아를 저(좋)아했구냐” 하며 경건하게 말한다.

마우이(Maui) 섬의 할레아칼라(Haleakala) 국립공원의 허허한 화산분화구를 바라본다. 화산이 터졌던 지구의 피부가 허벌나게 넓고 거칠다. 철 지난 재난의 현장에 거무튀튀한 용암이 반쯤 죽어있는 거대한 짐승처럼 내 눈 앞에 널브러진다. 김소월은 산유화를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하며 낭랑하게 읊었지만 내게 있어서 하와이의 휴화산(休火山)은 바로 코앞에서 단대를 풍기며 씩씩대는 나이 많은 짐승이다. 김홍서가 신축성이 강한 스키니 진을 입은 관광가이드, 순자에게 달리는 버스 안에서 무슨 질문인가를 한다. 질문도 답변도 둘 다 생각나지 않지만 지질학에 대한 의문점을 피력한 것 같다. 반면에 아침 저

성적인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사내들의 심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 다른 점이 있다면 우리 나이에 아무도 그걸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한때 뜨거움의 극치였던 화산 활동이 사라지고 없는 헛헛함과 원시림 우거진 숲 깊은 곳에서 힘차게 밀려오는 떨어지는 차가운 물줄기가 공존하는 하와이의 정서가 마음에 든다. 엄청난 파괴력을 품고 하늘로 치솟던 불길과 무섭게 추락하는 물길의 만남이 등골을 파고든다.

배에서 와이프들이 우르르 몰려 올라 춤을 배운다. 발의 동작도 동작이지만 홀라 춤은 하체보다는 상체, 다리보다는 팔 동작이 눈길을 사로잡는 여인의 몸놀림이다. 특히 허리와 엉덩이의 율동감이 무언가를 갈구하는 모양새다. 가끔씩 고국이 그리울 때면 한국 연속 드라마를 보는 우리의 아내들이 휘영청 늘어지는 하와이인 기타(Hawaiian guitar) 멜로디에 장단 맞춰 몸을 흔든다. 머리에 꽃을 꽂고, 머리마다 예쁜 꽃을 제각기 꽂고.

하와이 군도 다섯 개중 제일 북쪽의 카우아이(Kauai) 섬에서 목선을 타고 와일루아(Wailua) 강을 유람한다. 나이 지긋한 하와이 본토박이 사내가 기타를 치며 알로하오에를 노래할 때 그의 동양적 눈매가 천양곡과 매우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는다. 다른 섬들보다 카우아이 섬이 제일 마음에 드는 이유가 무엇일까. 빅 아일랜드는 거렁맛고, 마우이(Maui) 섬은 스산하고, 오아후(Oahu) 섬에는 빈부의 차이가 극심한 현대적 그림자가 깔리는 반면 카우아이 섬은 규모와 분위기가 조출하고 아기가기해서 쉽게 정이 가기 때문일 것이다. 영화 남태평양이며 주라식 파크도 바로 여기서 촬영했다. 카우아이 섬은 문명의 우아함보다 원시적 분위기가 들끓는 생명의 텃밭이

꿈틀거리는 듯하다. 채광이 좋은 목선 벤치에 앉아 김병오(청공) 형이 내게 과자를 권한다. 옛날 문예반 시절에 시험 준비를 한답시고 학교에서 잠만 자다 후다닥 깨어난 새벽 네 시에 종로 5가 쪽으로 함께 해장국을 먹으러 가던 기억이 새롭다.

어느새 일주일의 다 지나갔다. 마지막 저녁식사 때 영어로 한 생각을 우리말로 거침없이 번역해서 말하는 습관이 몸에 붙은 조중행이 내 앞에 앉는다. 포도주가 자꾸 당긴다. 과묵한 사나이의 강한 진면목을 암시하는 이 용환은 와이프에게 섬세한 신경을 쓰면서 그날 포도주를 얼마나 마셨을까. 내가 비판한 유교사상과 공자에 대하여 할 말이 많았던 김윤태의 공자 숭배사상에는 얼마만큼의 진척이 있었을까.

오후에 뉴욕행 비행기를 타는 마지막 날 아침에 오아후 섬 번두리를 관광한다. 다시 한번 풍성한 초록의 향연에 흠뻑 취하고 싶은 충동이 나를 사로잡는다. 이번에 회계를 맡아서 즐겁게 신경을 쓴 김윤성이 소정의 금액을 내게 반환하겠다고 친절하게 약속한다. 근 반세기가 지난 지금, 과거를 향한 향수와 현재의 새로운 현실감도 이제 또 하나의 심심한 과거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다. 7박 8일의 꿈결같은 시간여행 중 유독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방식으로 그리워할 것인가는 각자의 취향과 재량에 맡겼다. 비행기를 타기 전 나는 미리부터 하와이를 그리워하면서 눈을 게슴츠레하게 뜨고 다음과 같은 시를 구상한다.

**Captain James Cook**

온종일 철석이는 파도 소리 말고 다른 아무런 소리도 듣지 못하는 Hawaii 원주민들이 그 무렵 James Cook 선장이 몰고 온 배에서 이런 저런 물건을 훔쳤다는 소식을 바다가 들은 거지. 바다는 가슴이 말라, 가슴이 말라 우주의 숨길을 그리워하는 중 Kilauea 화산이 뺨 터지는 순간 마침내 말문이 열린다. 옷통을 벗은 원주민 돌이서 Hawaii 군도를 처음 발견한 영국 늑죽음 하나쯤 별로 중요치 않다는 의견을 주고 받습니다. 그들이 흰 이빨을 보이면서 걸어가는 Waikiki 해변에 땅딸막한 그림자 또한 들.

눈썹 짙은 James Cook 선장이 / 1779년 2월 14일 천 살 나이에 몽둥이로 목을 맞은 후 / 등을 칼에 찔려, 무수히 찔려, 뚫단배 Resolution 호 / 세차게 필러이는 듯 밀에 쓰러져 죽었다고 / 관광 가이드는 낮은 목소리로 말한다 / 금속으로 만든 일용품 없이 사는 원주민에게 / 선물로 준 칼, 바로 그 칼에 찔려 죽은 / 성미 양순한 James Cook 선장이었다고

Hawaii 파도는 New York Long Island 백사장의 파도 소리와 전혀 다른 소리를 내고 있었어. 2014년 1월 대학 졸업 45주년 기념으로 탑승한 Norwegian Cruise, Pride of America 호

에 비하여 James Cook 선장의 Resolution 호는 정말 너무나도 부실한 배였어요. 그 해 2월 경 태평양을 스쳐간 사소한 돌풍에, 사소한 돌풍에 뚫대가 와지끈 부러진 겁니다. 뚫대가 부러지거나 말거나 다정한 당신이 내게 "Aloha!" 하는 순간 나는 모음 세 개와 자음 두 개 도합 다섯 개의 음정이 시뻘건 용암 속에서 자맥질하는 동영상을 보려다가 불시에.







# 수녀 안젤리카 (Suor Angelica)

이혜원(61, 필라델피아)

푸치니의 II Trittico (삼부작)의 하나로 다른 두 단막 오페라 II Tabarro (망포 혹은 외투)와 Gianni Schicchi (지아니 스키키)와 함께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좌에서 1918년 초연을 가졌다. 이 수녀 안젤리카는 세 단막극 중에서는 극적으로는 가장 조용하고 차분한 오페라이며 못 소프라노의 사랑을 받는 가슴아픈 아리아 ‘아가야, 네가 엄마도 없이 죽었다니’가 나중에 나온다.

시기는 17세기 후반, 어느 수녀원에 서의 일이다. 주인공인 수녀 안젤리카 (Suor Angelica, 소프라노)는 귀족출신으로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 그녀의 양육을 맡았던 엄격한 이모에게 자기의 사생아를 맡기고 수녀로 들어와 지내고 있는지가 7년이 된다. 그사이 아거나 집안의 소식은 전혀 모르고 있다. 다른 수녀들은 그녀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지만 그녀의 몸가짐이나 약물치료를 대해 박식한 점을 보아 귀족출신일 것으로 짐작하며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교회종소리가 조용히 들리면서 막이 열리면 수녀원 마당이다. 꽃과 나무들이 있고 가운데 분수가 있고 옆의 교회당에서 수녀들의 찬송이 흘러나온다. 늦봄의 저녁시간 이다. 두 수녀가 예배시간에 늦어 급히 예배당으로 뛰어가고 역시 늦은 안젤리카 수녀 (Suor Angelica, 소프라노)도 땅에 엎드려 키스를 하고 들어간다. 잠시후 예배가 끝나고 수녀들이 둘씩 쌍을 지어 나와 서면서 수녀원장에게 인사를 한다. 그녀는 그들 모두에게 축복을 하고 자기 거처로 들어간다.

수녀수련장이 예배에 늦게 온 수녀, 예배중 웃고 주위사람까지 웃기게 한 수녀, 소매 안에 장미꽃을 감춘 수녀 등을 하나 하나 질책하고 그네들이 하나씩 용서를 비는 동안의 이 모든 순서가 노래로 진행된다.

이제 자유시간으로 들어가 마당안의 분수에 햇빛이 비쳐 금색분수가 된다고도 하고, 양치기하던 수녀는 다시 한번 새끼양을 보았으면 하고, 먹기 좋아하는 수녀가 자기도 소원이 있다고 하자 다들 ‘말 안해도 다 안다’는 등 서로들의 대화창과 합창으로 분위기가 화기애애하다. 한쪽에서 꽃화단을 가꾸며 조용히 있는 안젤리카수녀에게 모두의 주의를 가자 수녀들은 ‘안젤리카 수녀는 틀림없이 귀족출신이고 상당히 부유했다’고 ‘무슨 잘못을 했는지 그녀에 대한 벌로 수녀

로 보내왔단다’고 ‘그런데 7년이 되도록 가족들이 찾아오는 것을 본일이 없다’고 소근댄다.

이때 한 수녀가 급히 달려와 숨차게 ‘키아라 수녀가 별에 쓰여서 신음하고 있다’면서 ‘어서 약을 처방해 달라’고 한다. 수녀들이 ‘안젤리카는 어는 병에나 약처방이 있다’고 합창하는 동안 안젤리카는 급히 약초와 꽃을



수녀들이 모두 모여 대수녀의 교훈을 듣고 있다.

뜯어주면서 ‘가서 상처에 이것을 바르고 저것은 대려서 마시게 하라고, 그런데 몹시 쓸 것이라’고 한다. 그녀는 다시 ‘별에 쓰인것 쯤은 대단한 것이 아니니 너무 신음하지 않도록’ 주의를 준다. 주위에서 모두들 고맙다고 인사하고 그녀는 겸손히 답례한다.

그동안 시주받으러 나갔던 두 수녀가 당나귀에 짐을 싣고 들어와 모두들 반긴다. 하나씩 받은 물건을 보여줄때 마다 수녀들의 환성이 오른다. 먹기를 좋아하는 수녀에게 특별히 건포도를 주니 그녀가 모두들에게 나누어 주며 맛있게 먹는다. 시주해온 수녀가 ‘지금 밖에 아주 화려한 마차가 와 있다’고 하자 그때까지 자기 일에만 골몰하던 안젤리카가 ‘화려한 마차요?’하며 흥분한다. ‘귀족용 같다’고 하자 그녀는 흥분하여 ‘이렇게 이렇게 생기지 않더냐’고 다구쳐 묻는다. 주위에서 ‘안젤리카가 굉장히 흥분했어. 자기집에서 왔나 하고’고 얘기한다. 곧 손님왔다는 초종이 울린다. 대수녀원장이 직접 나와서 안젤리카에게 ‘이모가 왔다’고 침착히 말하고 흥분으로 몹시 들떠있는 그녀에게 ‘대화하는 내용을 성모는 다 들으신다’고 주의를 주고 안젤리카는 다시 성모에게 기도를 드린다.

모두가 자리를 떠난후 수녀원장의 안내를 받으며 거만하고 차거운 표정의 꽃꽂이 공작부인 이모가 지팡이를 짚고 들어온다. 그렇게 반가와 하는 조카를 보면서도 표정이 없이 조카가

손에 키스 하도록 놔둔다. 의자에 앉은 이모는 죄지은 조카를 아예 쳐다보지 않고 똑바로 앞만 본다. 이모는 근엄한 음조로 “In Principe Gualtiero vostro padre (20년전 너의 아버지 팔티에로 공작과 어머니 클라라 공작부인이 돌아가실때 그분들의 자녀의 모든 처사를 나에게 전임했다...너희들의 재산분배까지도 다 공평히 했으니 서류를 잘 보고 사인해라)” 한다. 안젤리카가 ‘7년만에 처음뵈는데 이곳에서는 용서하는 장소입니다’ 하니 ‘회개를 하는 곳이지... 이렇게 재산을 분배하게 된 것은 네동생 안나가 결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 깜짝 놀란 안젤리카는 ‘내 꼬마동생이 벌써 결혼을 ...그렇지 7년이 지났으니..

누가 신랄될 사람이지요’하니 이모는 ‘집안망신 시킨 너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 안젤리카가 놀라서 ‘이모 너무 무자비 하십니다’ 하니 이모는 화를 벌컥내며 ‘너네 어머니가 나를 원망하게 하려고 그러냐’ 라고 소리치다가 얼른 진정하면서 ‘나는 가끔 저녁기도 중에 어머니 영과 만난다. 얼마나 괴로워 하시는지... 너에게는 꼭 한마디 ...속죄 ...속죄 그 뿐이다’ 한다.

안젤리카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 아기는... 아기는, 한번 겨우 키스하고 나에게서 뺏어가 버린 내아기 말입니다... 지난 7년간 기도했어요. 아기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요’ 한다. 그렇게 안타까워 묻는 엄마를 말없이 무자비한 표정으로 보고 있던 이모는 ‘2년전 심한 병으로... 별방법을 다썼건만...’ 하니 안젤리카가 숨차게 ‘그러면 죽었어요?’ 하니 천천히 말없이 머리를 끄덕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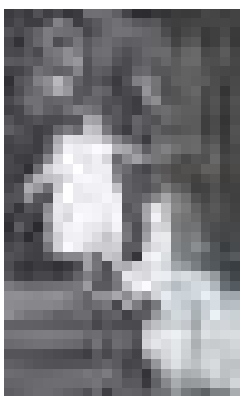
비명을 지르며 안젤리카가 앞으로 쓰러진다. 기절한 줄알고 부축하려던 이모는 그녀가 흐느끼고 있는 것을 알고는 돌아서서 성모상을 보며 기도한다. 컴컴해진 방으로 수녀가 등불을 가지고 들어온다. 이모가 무어라고 하니 다시 나가서 책상과 펜을 가지고 수녀원장과 같이 들어온다. 사태를 알아차린 안젤리카는 두말없이 서류에 싸인하여 자기 재산을 다 포기해 버린다. 이모가 떠나기전에 가까이 오려하자 안젤리카는 오히려 뒤로 물러선다. 이모는 그냥 걸어 나가며 거만하게 지팡이로 문을 두드린다. 수녀가 다시 들어와 등불을 들고 공작부인을 모시고 나간다.

이제 주위는 완전히 컴컴해졌다. 슬픈 전주가 잠시 나오면서 가슴아픈 소프라노의 아리아가 시작된다.

“Senza mamma, o bimbo, tu sei morto! (아기야 엄마도 없이, 키스도 못받고 죽었구나. ...이 엄마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지도 모른채 ...이제는 천국에 갔으니 이 엄마를 내려다 볼수 있겠니 ...아가야 언제 엄마도 너한테 갈수 있겠니. 말해주겠니... 사랑하는 아가야) 참으로 가슴이 찢어지는 노래이다. 묘지에서 돌아오던 수녀들이 무아경에서 기뻐하는 듯이 보이는 안젤리카를 보고는 ‘오늘 성모께서 당신기도를 들으셨다’고 ‘행복하겠다’고 한다. 아직도 혼미상태에 있는 안젤리카는 ‘그렇다’고 하고 모두들 ‘아멘’ 하면서 성모를 찬양하는 합창을 한다. 취침신호가 나오자 조용한 찬양을 하면서 모두들 퇴장한다.

무대는 완전히 비고 아까 부른 아리아의 멜로디가 간주로 반복해서 나오는 가운데 혼자 남은 안젤리카는 나무가지를 쫓아다가 불을 피우고 약초와 꽃을 따다가 작은 항아리에 넣고 대린다. 그녀는 ‘그동안 약으로 쓰던 꽃들, 그속에 들어있던 독물들, 이제는 내가 덕을 볼때가 됐다’하며 대려진 약이 든 항아리를 십자가 밑에 놓고 ‘꽃들아 너의 덕으로 오늘 나는 죽을 것이다’ 한다. 그녀는 다시 수녀들이 잠든 방을 향하여 ‘안녕히 계세요. 내 아들이 낙원으로 오라고 했어요’ 하고는 이번에는 교회를 향하여 ‘제 눈물과 기도를 받아주시던 작은 교회여, 저는 아들에게로 갑니다’ 하면서 십자가를 한번 껴안아보고 독약을 마신다.

그러다 갑자기 자살은 용서 받지 못할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녀는 다급해서 무릎을 꿇고 ‘성모여 구원해 주소서, 제아들을 생각해서라도 저를 구원해 주소서’ 하면서 기도한다. 이때 하늘에서 천국의 합창이 들리며 간헐적으로 그녀의 절규가 따른다. 이제는 교회안이 활짝 밝아지면서 문이 열린다. 그녀의 필사적인 기도와 천국의 찬송가가 번갈아 울리는 가운데 천사로 꼭 찬 교회안에서 여왕이 아기를 데리고 나타난다. 여왕은 아기를 손을 벌리고 반기는 엄마쪽으로 살짝 밀어 내보내어 천사의 합창이 울리는 동안 아기가 한발짝, 두발짝 앞으로 닥아오고, 엄마는 그때마다 반가와 ‘아!’ 하는데 세발짝 떼었을 때 마침내 엄마 안젤리카는 천천히 뒤로 넘어지며 숨을 거둔다. 기적이 무대를 가득 채운다.



아들을 환상속에서 본다

나는 어려서 부터 모든 일을 좀 늦게 터득하곤 했다. 좀 모자라게 아니면 저능아로 태어났을 가능성도 많았다. 이런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게 된 이유 중의 하나가 computer, smart phone and App에 들어가면 우선 겁이 났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렇지 요새 보면 누구나 그저 앉으나, 서나, 심지어는 걸으면서도 keyboard나 screen을 두들기며 무엇인가에 골몰하면서 즐기는 것을 보고 우리 삶이 변해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늦게나마 조금은 컴퓨터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하겠지만 아직도 나는 정말 초보자임에는 틀림없다. 이젠 집에 있는 싼 컴퓨터로 E-mail 정도 주고받고 하면서 그 편리함에 감사하고 또 Cel phone or Smart phone 없이 외출하면 지갑 없이 밖에 나온 것 같은 느낌을 갖게 되었다.

사실 나도 젊었을 때부터 듣고 또 느껴왔다. “기계 문명이 인간을 지배



## 나와 또 무세포의 나

허선행 (64, 대뉴욕)

할 때가 올 것” 이라고 그리고 요즈음엔 이 현실을 더 절실하게 실감하면서, “우리는 우리가 놓은 덫에 빠지는 격이 될지도 모른다고”

1950년대에 수학자였던 John von Neumann은 이미 Technological Singularity 라는 표현으로 Super Intelligence 가 개발될 것을 예측했고 우리 인간은 Digitally Immortal하게 되어간다고 해서 이제는 아예 “Singularity” 라는 단어 하나로 그 표현을 단축해 버렸다. 말하자면 Computer, Genetics, Nanotechnology, Robotics and Artificial Intelligence를 하나로 묶어 놓은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머지않아 생각하는 (Cognitive) Coomputer가 나와 “사랑한다, 외롭다, 놀러가자, 당신 예뻐졌네” 등등의 개인의 personality까지 갖고 있는 기능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에 대처해야 할 지는 물론 알고 있어야 할 것 같다.

단순히 의식이 있어서 생각하고, 느끼고, 기획하고 또 판단하는 단계를 넘어서 어느 사람의 두뇌 기능을 완전히 복사하고 육체의 구조와 기능까지 저장하고 영구히 보존하면서 이미 떠간간 사람의 역할을 똑같이 하는 또 하나의 그 사람이(?) 이 존재하게 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Ray Kurzweil (at Google)에 의하면 이러한 현상(Singularity)이 서기 2045년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견했으니 이 예측이 맞다면 인류 역사를 바꾸어 놓을 날이 멀지 않은 것 같다.

나의 단순한 생각으로는 예를 들어서 우선 지구상의 젊은이들을 복사한 robot이 아닌 제2의 자신들이 전쟁에 임한다면 실제 인물들은 편안히 앉아서 그저 치열한 전쟁 경과만 보고 있어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나” 는 어디서 어떻게 죽어도 별로 상관없는지?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도 지금의 나와 같은 인간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아직도 나는 컴퓨터의 유치원생으로 노파심 속에 앞날이 걱정되면서 미래의 후손들은 자기들의 증증증... 증손들과도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믿어야 할지!! 그저 이놈의 컴퓨터가 나를 바보로 만드는 것 같다.

紙上法醫

총을 쏜 장소



뉴욕 주 로크랜드 카운티에 있는 라마포(Ramapo)라고 하는 조그마한 타운에서 생긴 일이다. 경찰관이 도둑을 총 쏘아 죽인 사건이다.

이 동네에 사는 사람 하나가 경찰에 전화를 하여, 도둑이 빈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보고했다. 그 때가 초저녁이었다. 경찰서는 동네를 순회 중인 경찰차를 현장에 보냈다. 그 경찰관이 문제의 집 앞에 도착하니, 전화를 한 부부가 길 건너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이 말하기를 “푸른 바지를 입은 흑인이 연장으로 저 집 현관문을 부수고 방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소.” 라고 했다. 경찰관이 그 집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선 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도움을 구했다. 그런데 경찰서에 있는 경찰관들이 저녁 식사를 하러 가는 바람에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고, 그가 혼자서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관이 허리띠에서 권총을 빼어 들고, 조심스럽게 현관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속이 캄캄했다. “경찰이다. 손을 들고 나오너라.” 라고 고함을 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런 후 몇 초 동안 있으니, 이층에서 사람 그림자가 지나갔고, 다음엔 창문을 깨는 소리가 들렸다. 경찰관이 이층에 올라가 깨어진 창문 바깥을 내다보니, 도둑이 금방 땅바닥에 뛰어내려 도망하기 시작하고 있었다. 건물을 등지고 달려가고 있었다.

경찰관이 이층에서 뛰어 내려 도둑을 쫓아야 할 텐데, 무엇인가 손으로 잡으면서 내려가면 안전하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허둥지둥 그것을 찾다

노 용 면(55, 대뉴욕)

가 처마 끝을 쳐다보는 순간이었다. 도망가던 도둑이 상반신을 90도로 돌리고 자기를 쳐다보는 것이 그의 결눈에 띄었다. 도둑이 한 손에 무엇인가 쥐고 있는데, 그것이 총이라고 생각되었다. 총은 가진 도둑이 자기를 쳐다본다고 인식한 순간, 경찰관이 급히 그를 향해 총을 쏘았다. 도둑이 머리 오른쪽 후두부(뒤통수)에 총탄을 맞고 쓰러졌다. 죽은 도둑은 흑인이 아니고 유태계 백인이었다. 그가 손에 쥐고 있었던 것은 총이 아니고 유태인들이 머리에 쓰는 야마카였다. 이상은 경찰 보고서에 담긴 내용들이다.

그 당시 이 사건은 로크랜드 카운티의 대배심원에서 취급되었고, 경찰관이 정당방위로 총을 쏜 것으로 인정되어 일타락을 지었다.

그런지 수년 후 죽은 사람의 가족들이 그 경찰관과 라마포 타운을 걸어 연방정부 재판소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 경찰관이 라마포 타운에서 이미 은퇴한 후였다. 고소장에 기록된 내용을 보니 ‘경찰관의 진술에 의하면, 자기가 이층에서 총을 쏠 때 피해자가 땅바닥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랬다면 어떻게 하여 그가 이층에서 쏜 총탄이 피해자의 머리 뒤에 맞을 수 있었겠는가? 필경은 경찰관이 땅에 내려와 피해자를 잡은 후, 총을 피해자의 머리 뒤에 대고 잔인하게 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었다. 그러니 경찰관이 시민의 인권을 유린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형사소송이 아니라 민사소송이다.

미국 법에 의하면, 특별한 법적 이유가 없는 한, 살인 사건의 피고자가 일단 무죄 판결을 받으면 그를 또 다시 형사재판에 부칠 수 없게끔 되어 있다. 가령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피

고인에게 이중위험(double jeopardy)을 주는 것을 간주된다. 그러기에 살인사건에서 무죄언도를 받은 자는 그때부터 자유인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사건에 관련하게 된 것은 여기서부터 이다. 경찰관과 라마포 타운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나에게 물기를, 앞에 기록된 경찰 진술이 과연 타당하다고 보느냐고 하는 것이었다.

뉴욕 시에서 열린 연방정부 재판에서 나는 증인석에 앉자마자 판사에게 다음과 같은 사연을 말했다.

피해자의 머리에서 본 총창이 밀접 총창(총구를 머리에 대고 쏜)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은 시체를 부검한 로크랜드 카운티 법의관이 이미 증언한 바 있으니, 나로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것이고, 나는 오로지 경찰관이 건물 이층에서 총을 쏘았을 경우, 땅에서 자기를 쳐다보던 피해자의 후두부(뒤통수)에 총탄이 맞을 가능성이 있었겠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만 증언을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인체 동역학(kinesiology)의 원리에 입각하여 설명 하겠다고 했다. 그랬더니 판사가 아주 흥미를 보이면서 하는 말이 “아마도 배심원들 대부분이 동역학에 대해 모를 테니, 잘 설명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다. 인체 동역학은 내가 New York University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urse에서 다년간 가르치던 과목이다.

이제 경찰관과 피해자의 시선이 마주치고(eye contact) 서로 얼굴을 마주 보던 순간에서부터 총탄이 피해자의 머리 뒤에 맞는 순간까지 사이에 일어난, 두 사람의 몸 움직임을 조그마한 단면으로 잘라서 생각해 보기로 하자.

- 경찰관
- (1) 도둑이 손에 무엇인가 쥐고 있는 것을 결눈질로 보다.
  - (2) 그것이 총이라고 생각하다 (지각, perception).
  - (3) 도둑에게 총을 쏘기로 결심하다 (판단, judgement).
  - (4) 자기 머리를 도둑이 있는 쪽으로 돌리다 (45도 가량 회전).

- (5) 총을 겨누다 (총은 이미 허리띠에서 뽑고 있었음).
- (6)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다.
- (7) 총탄이 도둑의 머리에 까지 가다.

피해자  
경찰관을 쳐다보던 상반신 체위를 90도 되돌리고, 계속 달리는 체위를 취하다.

사람에 따라 몸을 움직이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조금씩 다를 수 있다. 그런데 문제의 두 사람의 경우에는 그것을 알 수 없으니, 많은 연구 결과에 입각하여 생기고 잘 알려진 평균치를 사용하는 수밖에 없다.

보통 사람의 반응시간(reaction time)을 고려하는 경우, 피해자가 갖고 있는 것이 총이라고 생각(지각)한 순간에서부터 그에게 총을 쏘겠다고 결심(판단)할 때까지의 소요되는 시간은 43 TMU(time-measurement unites)이다. 1 TMU는 0.00001시(10만분의 1시간) 또는 0.036초이다. 권총의 방아쇠를 당기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10.6 TMU이고, 머리를 45도 돌리는데 40 TMU가 소요되며, 머리를 90도 돌리는 데는 60 TMU가 필요하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할 때, 경찰관이 피해자가 총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서부터 그가 쏜 총탄이 피해자의 머리에 맞는 순간까지의 사이에, 피해자가 경찰관을 쳐다보는 체위로 다시 달리는 체위로 변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경찰관이 건물 이층 창문에서 쏜 총탄이, 땅에서 그를 쳐다보던 도둑의 후두부에 맞을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총을 쏜 장소를 밝히는데 도움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초을 잘라 사건을 조사한 것이다.

배심원들이 피고인을 무죄로 석방하는데 불과 2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Reference:  
1. Ralph M. Barnes : Motion and Time Study. John Wiley & Sons, Inc. 1968.  
2. Yong-Myun Rho : Director of Physical Biomechanics, New York University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Course 1979-86.

라면 생각이 난다. 매콤한 맛이 혀 끝에서 맴돈다.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 오늘 또 먹고 싶어진다. 기름기 없이 칼칼하고 화끈한 맛이 가슴에 맺힌 응어리들을 풀어줄 듯싶다. 양은 냄비에 물을 팔팔 끓여 힘든 마음처럼 마구 영킨 라면을 보글보글 끓여내면 삶의 뜨거움이 하얀 김으로 승화되며 부글거리는 가슴이 진정될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니 텍스트 메일이 몇 개 와 있었다. 오븐이 고장 나 요리가 힘들다는 세입자의 불평과 뒷문의 힌지가 맞지 않아 어떻게 문을 잠근 후 출근한다는 다른 임차인의 투정이 담겨 있다. 이어서 다음 달에는 새 곳으로 세를 옮겨야겠다는 또 다른 임차자의 메시지가 딱딱하게 경고되어 있었다.

잠시 후 걸려온 전화에는 오늘 계획된 파이프 수리를 연결 부품이 없어서 할 수가 없기에 다른 현장에서 일을 해야 한다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다. 수술한 다리는 저러 오는데 짧은 사이에 너무 많은 일이 예기치 않게 벌어진다. 이열치열이라고 했던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심사에는 화끈하게 끓여 낸 라면이 적격일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언뜻 보면 라면은 뇌를 닮았다. 뇌 사진 속의 주름진 뇌세포들의 합성 같다. 그래서인가, 꼬불꼬불한 라면은 쭈글쭈글한 뇌세포들로 이루어진 대뇌 같은 역할을 하는 것 같다. 뜨겁고 화끈한 라면을 먹어 배가 가득 차면 대뇌의 전두엽이 그랬듯 황홀한 포만감으로 채워지며 시상하부의 작용처럼 온 영혼이 행복해진다.

라면의 면발은 곱슬머리 같다. 성경속의 삼손과 데릴라 중, 삼손의 머리 카락은 곱슬머리인 게 틀림없다. 곱슬거리는 라면을 먹으면 온갖 시름이 사라지고 전하를 흔들 듯한 삼손 같은 에너지가 불끈 솟기 때문이다. 머리칼이 잘렸을 때 기운을 못 쓰다 머리카락이 다시 자라면서 힘을 쓰게 된 삼손처럼, 기력이 없다가도 곱슬 머리 모양의 라면을 먹으면 에너지가 솟아 나온다.

라면의 면발은 왜 꼬부라져 있을까. 삶이 직선같이 쉽게 펼쳐지지 않듯 라면에는 꼬이고 꼬인 인생이 담겨있기 때문이리라. 삶이 국숫발처럼 앞만 보는 직선으로 간다면 일탈이 있어야만 변화되지만 꼬부라진 곡선은 옆과 뒤를 항상 볼 수 있기에 거기에 부드러움과 유연성이 있다. 심장의 활동을 기록한 도면인 심전도에서 직선은 사람의 죽음을 의미하지만 살아 생동하는 심장은 꼬불꼬불한 곡선이다. 그렇게 보면 곡선을 유지하고 있는 라면은 생존해 있는 것이 분명하다. 가지런할 것 같지만 뒤죽박죽 엉켜 있는 세상 또한 필멸하게 살아 숨 쉬는 곡선일 것이다. 얼크러지고 설크러지며 꾸불꾸불한 삶을 닮은 라면의 꼬부라진 정렬, 그것이 생동하는 인생일 듯싶다.

라면의 면발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정처럼 얽히고설킨 채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세상 사이를 오가는 라면도 어쩌면 라면과 사람 사이를 그렇게 끈끈하게 잇고 있는지도 모르다. 수많은 면발이 연

결되어 만들어진 라면은 한 개의 큰 뭉치로 되어있다. 힘없는 민초들이 뿔뿔 뭉쳐야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듯 여린 면발들은 한 몸이 되어야 어리고 저린 삶의 상처를 어루만질 수 있나 보다.

뜨겁게 라면을 끓인다. 끓는 물에 김치와 콩나물 그리고 면발을 넣고 끓어오르는 삶의 번뇌를 펄펄 달인다. 흰 기체들이 오르자 냄비 뚜껑에 면발을 덜어 긴 젓가락으로 라면을 휘저어 입에 넣는다. 지렛대 같은 젓가락으로 영킨 면발을 정리해, 라면같이 엉키고 꼬인 세상을 내 식으로 바로 잡는 것이다. 마구 흩어진 세상을 나만의 빛깔로 갈무리해야만 상처받기 쉬운 영혼에 흡입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물결 모양의 라면 발은 과도치는 삶의 물너울 같다. 삶의 오르막길과 내리막길인 양 라면 면발은 상승곡선과 하강곡선의 연속이다. 아스라이 어진 커브의 연장들은 분위기 함한

오늘과 운 좋은 내일로 연결되어 되풀이 될 삶의 언덕들이다. 가지런할 것 같지만 뒤죽박죽 엉켜 있는 라면 발 같은 세상에서 후루룩 소리로 식도를 넘어가는 꼬부라진 면발들은 꼬이고 뒤틀어진 심사를 평정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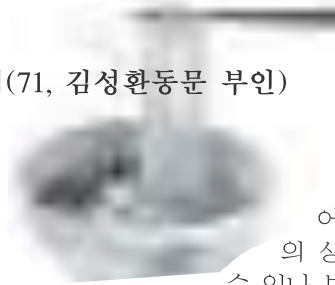
라면은 세상의 축소판이며 삶의 축소판이다. 라면에는 짜고 맵고 뜨거운 삶이 고스란히 배어있다. 꼬인 세상은 답고 힘든 길을 만들며 후루룩 후루룩 정신없이 몸과 영혼으로 들어선다. 라면 발같이 엉키고 꼬인 세상이 안으로 마구 쏟아져 내리는 것이다. 한편으로는 혐오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짜고 맵고 뜨거운 것을 먹어야 기운이 솟는 것으로 보아 나는 어느새 그것에 지독한 중독이 되었나 보다. 이상한 것은 구부러진 라면을 먹으면 꼬여버린 세상과 하나가 되어선지, 아니면 라면 발 같은 융통성이 생겨서인지 왠지 살맛이 난다.

라면 발같이 곱슬머리인 나, 빠닥거리는 봉지를 만지며 생각에 잠긴다. 소박하게 몸을 낮춘 라면처럼 세상이 필요로 할 때 허기진 영혼들을 따듯이 채워줄 수 있을까. 새침하고 칼칼하게 화끈한 자극으로, 친구 같은 연인으로 동반자가 되어 아픈 삶의 시름을 담아주는 그것. 울적한 날이나 외로울 때면 감칠맛 나는 그 식감으로 지독한 세상을 잠시 잊게 해줄 라면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아, 라면을 다시 뜨겁게 끓여야 될 것 같다. 이미 혼을 뺏겨 지독한 중독이 되어버린 나는 어쩌면 맵고 짜고 뜨거운 삶과 매일매일 격렬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라면

김영애(71, 김성환동문 부인)



아리조나, 웬지 이국적이고도 사막의 냄새가 물씬 나는 이름.

내가 아리조나에 관해 아는 것이 무엇일까? 1955년대 명국환이 부른 '아리조나 카우보이'가 제일 먼저 떠오른다. 그 멀고도 아득하게 느껴지는 곳에 처음으로 간 것이 벌써 한 15년쯤 되었는가 보다. 지금은 캘리포니아로 이사 간 고남규 군이 같은 오하이오주에 살 때였다. 12월쯤으로 기억되는 어느 추운 겨울날 그가 전화를 했다.

'애리조나 가본 적 있어?'

'없는데..'

'그럼 한번 가보지 않을래?'

'어떻게?'

'사실은 그곳에서 비뇨기와 화화가 있는데 우리집 사람이 못가게 되어 자네가 대신 갈수 있으면 같이 가자.'

'그래?'

'모든 비용은 제약회사에서 부담하니 비행기 표만 사가지고 몸만 오면 돼.'

참으로 구미 당기는 제안이었다.

그때만해도 제약회사에서 의사들에게 여러 가지로 혜택을 줄 수 있었던 호랑이 담배 먹던 시절이었다.

가서 사일 묵으면서 골프도 좀 치고 또 그후에 곧 있을 22회 동계 아리조나 골프 여정에 합류하자는 아주 달콤한 유혹이었다.

'그래 가자.'

서둘러 휴가 계획 변경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당직 일정에서 그 한주일을 전부 뺐다. 마누라는 집에 두고 혼자 함박눈이 펄펄 날리는 날 신시내티를 겨우 출발하여 아리조나 휘닉스 공항에 도착 해보니 차창 밖의 가로수는 전부 오렌지 나무들, 노란 오렌지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다. 눈구덩이에서 겨우 기어 나왔는데 여기는 오렌지가 열려 있다!

공연히 화가 끓어오른다.

왜 나는 하필 그렇게 추운 곳에서 살고 있나?

예약되어 있던 휘닉스 빌트모어 호텔로 향했다. 이 호텔은 하버드 출신으로 Frank Lloyd Wright의 제자였던 (시카고에서 1907-1909 사사) Albert Chase McArthur가 설계하여 건축한 역사적인 건물이다.

방에 들어가 보니 운동장만한 크기에 더블베드가 틀이나 있었다. 그날 늦게까지 기다렸으나 남규군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는 임금같이 독방을 즐길 수 있었다. 다음날 도착한 남규 이야기로는 오하이오 북쪽에 눈이 너무 와서 비행기가 뜨지를 못했단다.

나의 아리조나 초기 전문가는 이렇게 시작 되었다. 그리고 그 후 몇번의 골프여행과 아들과의 Sedona, Grand Canyon 관광을 더 갔었다.

1974년 군복무시절 수도통합병원에 근무 할때 만난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 당시 수도의대를 졸업하고 곧바로 군에 입대하여 중위 달고 전방근무하다 어찌하여 단기 마취수련을 하여 삼척 이동의과병원에 근무하던 조선생을 알게 된 것이다. 그는 틈만 나면 우리 과를 찾아와 마취에 관해 물어보곤 하여 친해지게 되었다. 사람이 좋아 보이고 직선적이고 활발하며 심성이 곧은 사람으로 보여 더욱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다. 오죽하면 내가 누이동생 중매서고 싶어 년지시 물어보았다.

'조선생, 만나는 여자 있어? 중매 들고 싶은데'

'저는 어머니가 이미 정해 놓은 사람이 있는데요.'

'그래? 알았어.'

좀 실망이 되었으나 어찌랴 선약이 있으니. 그러나 그와의 관계는 계속 되었다. 군 제대 후 미국으로 간 그에게서 연락이 왔다. 아리조나 시골 Sierra Vista (시에라 비스타 =Mountain View)에 가서 마취 개업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로도 가끔 연락이 왔다.

내가 미국행을 결심하고 병원 자리를 찾을 때 그에게 편지를 보냈다. 아리조나에 마취수련 자리가 있나 물어본 것이다. 그의 대답은 잘 모르겠고 다른 곳을 알아보라는 것이었다. 그 후 내가 신시내티에서 수련을 받는 동안 가끔 격려편지나 전화가 왔었다. 몇번씩이나 다녀가라는 그의 초청을

있었다. 따라서 곁가지가 많을수록 늙은 나무이다.

아리조나 사막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메마르고 거친 곳이 아니었다. 선인장과 작은 관목들 사이로 로드러너가 뛰고 도마뱀이 숨어 있으며 메추리나 다른 새들이 지저귄다. 황량한 아름다움(stark beauty)이

## 아리조나 이야기

이건일(68, 오하이오)

몰리치다가 빌트모어 호텔에서 나와 주광국군이 묵던 힐튼 호텔 그의 방에 빈대 붙어 묵으면서 광국의 심한 코골이를 참아가며 얻어 자면서 며칠 지나다가 드디어 조선생을 찾았다.

Phoenix(휘닉스)에서 차로 두 시간을 달려 투슨(Tucson) 그의 집을 찾아 갔다. 그의 집은 투슨에서 제일 좋은 주택가인 Lowes Ventana Canyon Golf Villa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골프를 치지 않는다고 했다. 점심 저녁 얻어 먹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내일 정상 아쉬운 작별을 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나는 다시 휘닉스로 돌아 왔었다. 그것이 벌써 15 여년전 일이다.

그 후로도 그와의 인연은 계속 되었다. 매년 연말이면 아리조나 달려를 보내왔고, 어느 해에는 집에서 키운 레몬을 한 상자 보내오기도 하였고 작년에는 집 뒷뜰에서 키운 대추를 잘 말려 보내 주었다. 하도 새들이 와서 대추를 쪼아먹는 바람에 망을 씌워 놓았는데 나무 꼭대기에 망을 씌우기 위해 Bobcat까지 빌렸다고 했다.

이 오하이오의 지루한 겨울에 잠시라도 추위를 피해 보려고 이번 겨울에는 오랜만에 투슨으로 조선생을 방문하기로 하였다.

새벽 5시에 집을 나와 7시 비행기로 미네아폴리스를 경유 투슨에 도착하니 오후 2시다. 마중나온 조선생을 만나 반갑다. 현대 나는 그가 SUV나 트럭 정도 몰고 나올줄 알았는데 웬걸 4인승 풀체다. 그에 대한 나의 관심이 약간 수정 되었다. 나중에 들어보니 그에 얽힌 이야기가 많았다.

조선생 집으로 가보니 전에 살던 같은 동네인데 약간 더 언덕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거대한 단독 주택이었다.

아리조나 같은 더운 사막 지역에서는 언덕위로 올라 갈수록 집값이 비싸진다는 것은 알고 있었다. 낮은 지역 보다 온도가 5-10F 낮아지니까 말이다. 점심 저녁 잘 얻어먹고 이 집에서 한 20km 떨어진 정해 놓은 숙소에 들렀다. 그 다음 날 부터 이들은 우리 둘만 관광을 다녔다.

우선 University of Arizona에 있는 Arizona State Museum에 들렀다. 이 지역 Sonora 사막에 살던 Hopi, Apache, Navajo, Tohono O'Dham 인디언 부족의 불행하고 슬픈 역사, 백인들에게 밀려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갔었던 그들의 역사를 읽으며 치밀어 오르는 분노와 슬픔을 참기 어려웠다. 왜 인간들은 인종이 다르다고 해서 동물들보다 같은 인간들을 박해해야 하는 건지?

다음으로 찾은 곳은 Saguaro(사화로) 국립공원. 각종 선인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화로 선인장은 아리조나 주(州) 식물이며 그 꽃은 주화(州花). 열매는 인디언들의 식품이 되고 그것으로 담근 술은 제사에 쓰였다. 사화로 선인장은 주법으로 파내거나 잘라 버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화로는 150년까지 살기도 하며 옆으로 나오는 가지는 15-25년이 지나야 볼수

있는 곳이다. 사, 오월에 오면 선인장 꽃들이 핀다고 한다.

이곳에 와보고 나서부터 사막에 대한 나의 생각에 많은 변화가 왔다.

다음날은 차로 두 시간 거리에 있는 Chiricahua(치리카와) 국립공원으로 향하였다. 작년 9월 오찬규 선생과 메인주에 있는 Acadia 국립공원 들어갈 때 산 Senior 국립공원 패스가 이렇게 요긴 하게 쓰일 줄은 몰랐다. 아주 잘 쓴 \$10 이었다. 일생동안 미국 내 모든 국립공원은 무사통과이니 말이다.

입구에서 패스를 보이고 안내지도를 얻고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사람이 하나도 안 보인다. 밖에서 보기에는 그냥 평지보다 나무가 좀 많구나 하고 생각 했었는데 계곡 모퉁이를 돌아 기암괴석이 즐줄이 나타난다. 차를 몰아 굽이굽이 도는 길을 따라 정상에 오르니 차가 달랑 두 대 정차해 있다. 지도에 있는대로 짧은 hiking trail을 따라 걸으며 사진을 연상 찍어 대었다.

아리조나 관광 사진에 꼭 나오는 그런 기묘한 바위들이 무수히 서있다.

정상에서 좀 내려와 grotto로 가는 하이킹 트레일도 걸으며 사진을 많이 찍었다. 여기 오기를 참 잘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규모는 크지 않았으나 경치 하나는 절경 이었다. 흡족한 마음으로 숙소로 돌아 왔다.

닷새째 날에 우리는 Sierra Vista (시에라 비스타 =Mountain View)로 향했다. 조선생이 앨러바마에서 수련 끝내고 개업 자리를 찾아 온 곳이다. 투슨에서 한시간 반 거리에 있었고 멕시코 국경과는 그것보다 가까운 듯 하였다. 멕시코부터 오는 마약의 주요 루트라 도로 곳곳에 검문소가 보였다.

조선생은 이곳에 침실 네 개짜리 단층집에 살고 있었는데 개업 후 사서 지금까지 살고 있다고 한다. 그 후 딸애들 학교 문제로 투슨에 집을 한 채 더 사고 두 집 살림을 하고 있었다. 그의 집 뒤뜰은 각종 공구로 가득 차 있었다. 골프를 치지 않는 대신 그의 취미는 공구를 사서 무어든 고치는 일인가 보았다. 집의 마루도 자기가 다 깔았고 웬만한 plumbing은 손수 해결하나 보았다. 차도 트럭 두대, SUV 두대, 풀체 2인승, 4인승 두대, 토요다 캠리 한대 전부 일곱대. 자동차 유향유 교환 등 기본 정비는 손수 한다고 했다. 나에게 빌려준 Toyota 4 Runner도 십년이 넘었다는데 엔진 소리가 아주 조용히 잘 달렸다.

집 뒤뜰에 보니 그 대추나무가 네그루나 있었다. 점심을 속칭 금비라는 굴비정식으로 잘 얻어먹었다. 한 20여년만에 처음으로 먹어 본 듯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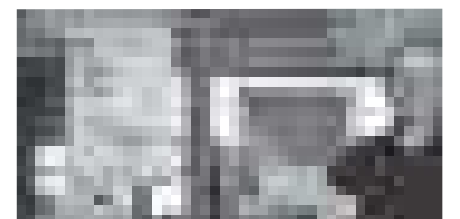
식사후 가까운 곳에 있는 마을을 돌아보기로 하였다. 전에 광산촌이었고 한때는 이곳 Cochise군 군청소재지였다는 Bisbee(비스비)부터 들렀다. 작은 산골 마을로 협곡을 따라 발전한 곳이다. 마을을 통과하는 길을 따라 언덕길을 조금 걸어올라가니 Grand Hotel이 나온다. 마침 변소도 걸림 들어 보았다. 아주 옛날식으로 단장된

서부 영화에 나올 법한 saloon이다. 바텐더인 아줌마에게 물어보니 바 겸 호텔 후런트 데스크란다. 내부는 한 20년 된 것이고 건물은 100년이 넘었다고 하였다. 커피를 한잔 하고 나왔다.

한 30분 운전하여 들린 곳은 그 유명한 Tomb Stone, O.K. Corral Gunfight를 재현 해놓은 인형들과 마구간, 대장간 외에는 별로 볼거리가 없었다. 관광 시즌이 아니라 시내 한복판을 가로 지르는 중심가도 한산하기 그지 없었다.

다시 조 선생 집으로 차를 돌렸다. 저녁으로 굴비 정식을 복습하고 포도주 두병을 비우며 우리는 옛날이야기로 꽃을 피웠다. 한국 남자를 모이면 군대 아니면 축구 이야기라더니 역시 우리도 군 복무시절 이야기에 미국 와서 수련 받던 일에 먹고 살려고 힘들게 고생하던 이야기로 끝이 없게 풀어나갔다. 원래는 다시 투슨 우리 숙소로 돌아갈 예정이었었지만 이야기보따리가 풀리니 갈수가 없었다. 자고 가라는 조선생 말에 못이기는 척하고 첫술 두개까지 얻어 하룻밤을 신세 지기로 하였다. 다음날 아침까지 잘 얻어먹고 투슨으로 향하는 길에 올랐다.

중간에 Benson이라는 작은 도시를 지나는데 그 외곽에 책방이 하나 있다는 관광 안내서대로 고속도로에서 빠져 사막 길을 한 일마일쯤 올라가니 쇠로 만든 간판이 나온다. 다시 좁은 비포장도로를 한 반마일쯤 더 들어가니 나지막한 건물이 나타난다. 입구에 종이 하나 매달려 있고 이것을 울리라고 써있다. 우리 마나님이 종을 치니 우선 개가 짖는다. 이윽고 할머니 한 사람이 나와서 들어오라고 하였다. 책방 안은 낮은 천정에 좁은 공간을 세군대로 나누어 놓았다. 할머니가 자기 이름은 Winifred Bundy인데 짧게는 Winn이라고 불러 달란다.



책방을 시작 한지는 40년, 함께 시작한 첫번째 남편 Mr. Bundy는 죽었고 두번째 남편도 몇달전에 죽었다고 묻지도 않는 말에 대답을 한다. 자기 어렸을 때 소원이 책방과 아이스크림 가게를 가지는 것이었는데 책방만 가지게 되었다고 한다. 책방을 하필 이런 middle of no where (아무 것도 없는 강촌)에 열었느냐고 물었더니 자기는 카우보이와 시골사람들이 책을 접할 기회가 없는 것 같아 이들에게 혜택을 주자고 시작 하였다고 한다.

참으로 좋은 마음씨였다. 처음에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반대 하였으나 일단 책방을 열자 주위의 카우보이들과 시골사람들이 아주 열심히 밀어 주었다고 자랑하였다. 지금은 세계 각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나같은 나그네도 들릴 정도가 되었으니 참으로 다행한 일이다. 나는 책방에 가는 것을 아주 좋아하기에 이보다 듣기 좋은 이야기는 별로 없다.

Winn이 열심히 책들을 설명 한다. 당초에 내 생각에는 그저 아리조나에 관한 책들 아니면 사막이나 카우보이에 관한 책들 밖에 없을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Winn이 손수 고른 책들만 주문해서 진열을 해놓았기에 여러 분야의 책들이 아주 다양하게 꼽혀 있었다. 특히 여성이 쓰거나 여성의 역할을 강조한 책들이 많아보였다. 그러고보니 이 할머니 인상이 왕년에 Woman's Libertion Activist 였던 것 같다. 이것저것 보다가 현지 작가들 책 두 권을 샀다. 다시 들리겠다는 말을 남기고 나왔다. 후에 <다음면에 계속>



# OUT OF AFRICA

조세진(71, 캔사스)

언제부터 인지는 몰라도 이 Out of Africa spellbound words는 늘 내 마음 속에 맴돌고 다녔다.

고등학교 동아리 활동으로 Dr. Allen D. Clark이라는 신학박사 북장로교 선교사가 인도하는 영어회화 Club에 다녔다. 그 분 아버님은 언더우드, 아펜셀러 선교사들과 함께 대한제국 말기 초대 북장로교 파견목사였다. Clark 목사님은 한국에서 태어나 낳고 자라서 양국 언어에 정통했고 아버지처럼 미국에 돌아가서 신학공부를 전공했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 오셔서 선교사로 일생 봉사하셨다. 그 동아리 활동은 내 장래에 큰 영향을 미쳤다. 목사님의 종교관과 봉사정신 그리고 동아리 동기 선배들의 Peer influence도 컸다. 미주 동창 회원중 동아리는 조중행(69), 최광택(70), 이성호(72) 동문들이고 아직도 서로 교감하고 배운다.

Out of Africa가 내 입술에 처음 오른 것은 아마 고등학교 1, 2학년 때 일 것 같다. 영어회화를 과외활동으로 하니 Robert Frost, Longfellow, Wordsworth들의 영시도 읊조리고 소설도 원문으로 읽는다고 건방 떨고 다녔을 때이니까. 그 중 하나가 Isak Dinesen의 회고록 (Out of Africa)인즉 싶다. 이 책은 1937년에 출판됐고 저자의 본명은 Karen von Blixen-Finecke로 이 책은 Non-Fiction 자서전/회고록이다. 원본은 영어로 썼고 후에 Karen의 모국어 Danish로 써졌다. Denmark인이 영어로 쓴 자전소설이라 한국소년에게도 쉽게 읽혀졌겠지.

Karen은 스웨덴 귀족 Baron Blixen-Finecke와의 결혼으로 Baroness가 되고 남편과 함께 British East Africa (Kenya)로 이민을 간다. 이 둘의 결혼은 사랑 없는 팔촌간의 정략결혼이었다. Nairobi 인근에 커피 농장을 개간해 일차대전 후 커피 값이 폭등하자 농장을 확장했지만 그들의 결혼생활은 평탄치 않았다. 양쪽 다 문제가 있었지만 주인인은 남편의 바람기와 불성실한 인생관이었다. 예측한대로 이 두 부부는 1921년에 별거하고 4년 뒤에는 공식 이혼했다. 농장은 Karen이 맡아서 경영하다 결국은 실패해서 1931년에 농장을 팔고 덴마크 고향으로 돌아왔다. 농장을 매입한 부호는 Remi Martin 이었다.

1937년에 Out of Africa를 출간했다. 가장 믿을만한 제목의 출처는 다음과 같다. Karen은 1915년 남편한테 전염된 Siphylis를 치료하느라고 덴마크 병상에 있을 때, 'Ex Africa'라는 시를 썼다. 이 시 제목은 유명한 Latin말 명구 "Ex Africa semper aliquid novi" :

아프리카를 벗어나면 무엇이든지 다 새롭다에서 왔다고 한다. Karen의 속내는 "바람둥이 남편 팽개치고 커피 농장 팔아 아프리카에서 먹튀하면 세상은 한결 좋아지겠지?." 영어도 아

〈전면에서 계속〉 아리조나에 올 일 생기면 꼭 다시 들리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투스로 향했다.

이튿날 10 시경에 투스 근처에 있는 Saguaro National Park East로 향하였다. 먼저본에 갔던 곳은 Saguaro National Park West로 투스 시가지 양쪽에 국립공원이 있는 전혜의 조건이다. 공원에 들어가 지도를 열고 차로 좀 가다가 내려 hiking trail을 따라 한 삼십분쯤 걸었다. 초행길에 사막에서 무리하면 안될 것 같아 한시간 거리를 잡은 것이다. 곳곳에 늘어진 선인장들과 관목들, 하늘 위를 빙글빙글 돌고있는 솔개, 뛰어다니는 로드런너, 지저귀는 새

직 서툰고 사춘기도 힘 빠진 배터리 같은 나에겐 깊은 의미 없지만 품 잡을 수 있는 멋진 문구였을 뿐이다.

'Out of Africa'가 다시 소용돌이치듯 내 마음을 흔든 것은 의과대학 졸업 시험치고 군의학교 신체검사를 기다리며 빈들거리던 시기였지만 인생의 분기점에 와있는 심각한 두 달이었다. Killing time으로 Saint-Exasper의 Le Petit Prince를 읽고 있었다. 작가가 그린 동화 같은 표지에 속아 가볍고 순진한 마음으로 시작했다. 놀랍게도 이 동화 형식을 빌린 소설은 Life and Human Nature에 대한 사려깊고 이상적인 관찰을 갈파하고 있었다. Antoine de Saint-Exupery는 Paris-Saigon Flight 경기를 1935년 18시간 36분으로 주파해서 우승한 Professional French Pilot였고, 불란서-알제리아 항공우편 배달 비행사로 지중해를 오가는 야간 비행을 하면서 인생에 대한 독특한 체험을 했다. 별빛 찬란한 밤하늘, 그 아래 지중해에 비춰진 밤하늘 그림자. 그사이로 일엽편주 단발기를 몰고 혼자 비행하는 저자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 Space station에서 일하는 Astronauts 들처럼 우주라는 관념을 체득했다. 동시에 어린 왕자도 태어났다. 그의 항공우편 배달사의 역할은 Libyan Sahara의 Wadi Natium에 추락하며 끝났다. 이런 생의 경험으로 쓴 Night Flight가 대표작이다. Le Petit Prince는 이밖에도 이차대전 말인 1943년에 미국 Long Island에 머무를 때 썼다. 아직도 Asharoken, L.I.에는 Bevin House가 서있다. Asteroid. B612에서 7th Planet(Earth)로 날아온 Le Petit Prince는 사막에서 만난 Fox와 철학적인 대화를 한다.



대표적인 대화는, Prince said to Fox, it is only with heart one can see rightly. What is essential is invisible to the eye. Fox articulated, "You become responsible forever what you have tamed. It is the time you have spent with your rose so important." Prince는 후일을 약속하고 Asteroid B612로 돌아갔다. 이 글은 나의 Out of Africa가 되어주었다. 서울에서 나는 배꽃동산 졸업식을 피해 충북 괴산 보건소로 Research Survey를 갔다. 초청해주신 임한중/조승렬 교수님 감사합니다. The Rose는 Le Petit Prince 책 한 권과 "See you in Asteroid B612." 라고 쓴 카드를 졸업선물로 받았다. 전쟁말기 그는 해외 프랑스 공군에 자원하여 유럽폭격 임무 수행중 지중해 상공에서 실종됐다. Meaning of Out of Africa는 나에겐 쓰레기 정리해서 난지도 처리장에 버리고 김포공항으

로 가서 유학 오는 것이었다. 자랄 수 있게 모이를 준 영계에 감사하고, 영계백숙 할 때는 영계가 씨암탉보다 더 값나가는 것을 몰랐던 멍청이도 있었다.

동명의 영화가 1985년 크리스마스 시즌에 개봉됐다. Meryl Streep, Robert Redford가 주연하고 Sydney Pollack이 감독한 아카데미 어워드 수상 작품이다. 자서전/회고록에서 느낀 Inspiration을 영화에서는 느낄 수가 없었다. Meryl and Robert's show were too much out of Hollywood 였다. 나도 40이 다되니 심성도 마르고 또 Spiritual purity도 없어지고 Urban contamination 심했다. 아이야! 백두산 천지에 목욕이나 다녀오마.

신장이식후 건강도 많이 회복되고 백수로 노는 것도 민망하고 해서 의학공부를 다시 시작했다. 교과서 읽기는 너무 힘들고 boring해서 짤막한 논문이 들어있는 Journals를 주로 읽었다. 대한민국에서 노벨상을 짝사랑하고 있는 황우석씨가 논문을 냈다가 취소 당해 수도모당한 Nature지(3/99/2011)를 뒤적이고 있었다. Eureka! 나는 드디어 40년 동안 내 머리에서 맴돌던 Meaning of Out of Africa를 발견했다.

So God created man in his own image, in the image of God he him: male and female created he them. Genesis 1: 27-8.

이 논문이 제출한 의문은 How the penis lost its spikes? 이고 그 답을 분자유전학적 방법으로 구했다. Stanford 대학의 Developmental Biologists인 Gill Bejerano and David Kingsley는 인류와 Chimpanzees는 96%의 DNA를 공유하고, 인간은 Chimpanzees에 비교해 볼 때 보다 큰 brain을 가졌고 남자성기에 small sensory whiskers를 missing하고 있다는데 착안했다. 인류 진화는 유전자 돌연변이 또는 유전자의 addition으로 생기는 게 통설이다.

Human Genome Project(1900-2013)를 통해서 개발된 DNA Sequencing Technique이 이 연구를 가능케 했다. 침팬지에서 인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상당의 DNA가 실손됐고 이 실종된 유전자가 무슨 일을 하는지가 연구의 서곡이었다. 인간에는 없지만 Chimp에는 남아있는 510DNA sequences를 발견했다. 이 염기서열은 두 유전인자 사이에 있는 non coding region 이었고 양쪽 끝 coding region 즉 유전인자는 Androgen receptor(AR) gene과 Tumor suppression(GADD45G) gene였다. 다음단계 실험으로 이 DNA chunk를 생쥐 수정란 핵에 주입해서 무슨 일이 생기나 살폈다. 소위 말하는 Gene Expression experiment다.

AR gene sequence는 hard penile spines and sensory whiskers를 창출했고 후자는 쥐뇌에 특정부위가 축소됐다. 여기까지는 객관적인 Scientific facts이고 以上同文이지만 以下解釋은 百樣百色이다. 가장 인기있는(?) Interpretation은 다음과 같다. 동문중 유일한 미국의학유전학회 창립회원인 조세진 회원 말, "황우석 박사가 갖고 놀던 학술지라 좀 걱정되지만 독창적인 논문입니

다. 결론은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510 DNA sequences를 ditch해서 인간은 smooth penis와 bigger brain을 얻었다. Smooth penis makes sexual intercourses no longer painful physical activity. Furthermore enlarged cerebral cortex recognized the pleasures of this reproductive activity."

육두문자로 요약하면 인간은 더 이상 상대가 발정할 때만 房事하는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식음 전 폐하면서 마약중독 된 것같이 전력투구하더라. NO wonder they lost Paradise. 그렇게 해대니 인구폭탄을 맞아 지금 짐외베/빅토리아 호수 지역은 식량이 모자라 먹잇감을 찾아 인구가동을 시작했다. Hunter/Gatherer 시대의 이동은 강변과 해안을 따라서 이동했고, 농경문화 시대에 도달해서야 내륙 지역 이동이 시작됐다. Out of Africa의 월경지점은 Bab of Mandab과 Gaza strip이라고 추정된다.

농경시대 인류이동은 농지를 개간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좀 더뎠다.

2001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유전학 총회에서 발표한 Sir Weatherall의 논문을 이용하면 카스피 해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2000km를 주파하는데 2000년이 걸렸다 한다. 일년에 1km씩 행진했다. Sir Weatherall은 옥스퍼드 대학의 Radcliff Hospital 내과 과장이며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치의다. 한가지 위로 말씀은 실락원을 잃은 죄는 우리 조상도, 선악과도 아니고 Gene Deletion 이다.

그놈의 유전자! Out of Africa !

다. 결론은 인간으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510 DNA sequences를 ditch해서 인간은 smooth penis와 bigger brain을 얻었다. Smooth penis makes sexual intercourses no longer painful physical activity. Furthermore enlarged cerebral cortex recognized the pleasures of this reproductive activity."

육두문자로 요약하면 인간은 더 이상 상대가 발정할 때만 房事하는것이 아니라, 때와 장소 안 가리고 식음 전 폐하면서 마약중독 된 것같이 전력투구하더라. NO wonder they lost Paradise. 그렇게 해대니 인구폭탄을 맞아 지금 짐외베/빅토리아 호수 지역은 식량이 모자라 먹잇감을 찾아 인구가동을 시작했다. Hunter/Gatherer 시대의 이동은 강변과 해안을 따라서 이동했고, 농경문화 시대에 도달해서야 내륙 지역 이동이 시작됐다. Out of Africa의 월경지점은 Bab of Mandab과 Gaza strip이라고 추정된다.

농경시대 인류이동은 농지를 개간하고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좀 더뎠다.

2001년 비엔나에서 열린 국제유전학 총회에서 발표한 Sir Weatherall의 논문을 이용하면 카스피 해에서 스칸디나비아까지 2000km를 주파하는데 2000년이 걸렸다 한다. 일년에 1km씩 행진했다. Sir Weatherall은 옥스퍼드 대학의 Radcliff Hospital 내과 과장이며 엘리자베스 여왕의 주치의다. 한가지 위로 말씀은 실락원을 잃은 죄는 우리 조상도, 선악과도 아니고 Gene Deletion 이다.

그놈의 유전자! Out of Africa !

그놈의 유전자! Out of Africa !

## 매듭

서윤석 (68, 버지니아)

매듭에 얽힌 긴 추운 겨울에 갇혔다가 나온 사람들은

젓빛 아스팔트 위에 흘러 빨간 핏덩이에 놀라고 여기 쓰러진 다람쥐의 반짝이는 작은 입술 황금색 털뭇에 눈부셔 하다가

매듭을 달고 하늘을 받으며 아름다운 삶을 사는 길가의 플라타너스 나무들을 북서풍에 멧있게 머리 빛은 페블(Pebble) 해변의 푸른 소나무들을 부러운 듯 바라본다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 밤이 깊도록 이야기꽃을 피우다 숙소로 자러 갔다.

다음날 아침 조 선생 내외분이 호텔로 데리러 와서 공항에 데려다 주었다. 중간 기착지인 Salt Lake City로 가는 도중에 내려다 본 경치는 눈 덮인 산맥들이었다. 투스 비행장에서 두시간, SLC까지 2시간, SLC에서 3시간 기다리고 신시내티까지 비행시간 3시간. 도합 10 시간에 집에 오는 40여분 합쳐 근 11시간이 걸려 도착하니 밤 11시가 넘었다. 출고 눈 내리는 곳으로 다시 돌아온 것이다.

벌써 아리조나의 파란 하늘과 70F의 온도가 그리워진다.

# 대일 관계와 사대사상

김해암(58, 대뉴욕)

뉴욕에서 정신치료를 하다 보니, 일본 말도 늘고 일본식 사고도 제법 알 듯하다. 일본인이 제일 많이 사는 뉴욕지방에서 일본인의 전후의 심리적 발전과 동태를 내가 보아온 환자와 가족을 통하여 알게 된 바를 적어 본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일본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서양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서양을 더 알고 싶어 하는 노력이 부단히 진행되고 있음을 본다. 우리는 좀 더 이웃을 알아야 하겠다. 그러기 위하여 한국이 아닌 미국이나 구라파에서 한국과 이웃을 지켜보는 관찰이 정확도를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는 전제하에 이 글을 읽어 주면 고맙겠다.

대체적으로 국제간의 문제되는 사건이나, 갈등을 해결하는데 통례가 상호의 공동이익을 찾고 상호간의 위신을 세워주는 외교가 성공으로의 길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를 보면 한국이 좀 더 타협적인 듯 하나 일본은 자기들의 이익을 앞세우기가 일수다. 나는 일본경제신문을 읽으며 다음 시나리오를 상상해 보았다.

한국 외교관이 일본 외교관과 만나서 돌과구를 찾아 보려한다.

일본 외교관이 먼저(웃으며)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나요?” 묻자

한국의외교관: (비꼬는 어투로) 일본인은 역사를 거꾸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 한데 일본이 과연 미국과 연합군에게 패전한 것은 사실이지요?

일본인 외교관: 우리는 잘 알고 또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죠. 패전한 것이 오히려 잘 되었다고 믿었는데---, 요즈음은 그것이 모두 역사를 왜곡한 것으로 보며, 실은 일본이 패전의 시늉을 낸 것뿐이요. 연합군을 구어 삶아서 우리말을 잘 듣게 하는데 성공한 셈이지요.

한국의외교관: 그것은 당신들의 자아 칭송이요. 우리가 보기에는 당신들이 무지 고생하다가 한국동란으로 미국을 업고 재기 했소. 한국의 비극에서 어부지리의 이익을 본 것 아닌가요?

일본외교관: 그럼요. 우리는 덕분에

경제 재건을 했지요.

한국의외교관: 그럼 왜 한국과 북한에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동양 도덕에 합당한게 아닐까요?

일본외교관: 천만에요. 우리는 한국을 도와서 한반도 전쟁을 끝내고 그 후 전쟁의 피해를 복구하는데 도왔으니 한국이 고맙다고 해야 할 것이 역사를 바로 보는 것 아닐까요?

한국의외교관: 천만에요. 미국이 경제 원조로 재건하는 것을 당신들이 하청 받아 그 돈을 옆에서 가로채 간 것이 사실이지요. 그게 바로 역사를 거꾸로 보는 것이지요.

일본외교관: 아닙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미국은 우리가 천황처럼 모시던 맥아더원수를 하루아침에 불러가고 공백을 만드니 우리는 다시 신포를 믿는 천왕을 모셨지요. 맥아더원수는 미국 국회에서 일본의 성향을 이야기 할 때 “일본 사람들은 12세 미만 어린이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니 우리는 그렇게 다루어 주었고 귀여웠습니다. 나를 칭송하는 편지를 50만 통이나 보내 왔으니 나는 그 편지들을 읽느라고 밤 뺏지요.” (맥아더장군은 아침 일찍 출근하고 그런 편지 읽는 것이 일과 였다는 설이 있다.)

한국의외교관: 그것은 일본사람들이 역시, 잘못 해석하는지 역사를 거꾸로 보는게 아닐까요?

일본외교관: 왜요?

한국의외교관: 동양 도덕에 배운망덕이라 하지요. 맥아더장군이 그런말을 했다 해도 그 분이 한국 전쟁 때에 일본이 풀어준 미국 경제원조를 도맡아 중간 상인 역할을 해 이득을 보았는데도 맥장군에 고맙다거나 한국을 위로하는 말조차 없는 것을 “온가에서” (은혜를 보답함) 모르는 몰염치가 아닐까요? 일본 사람들끼리만 칭송하고 외국인은 역사적 대상이 안되나 보죠?

일본외교관: 그렇지는 않아요. 우리는 세계 사람들에게 예의 바르고 재빠른 눈치로 판단을 잘한다는 정평이 있거든요.

한국의외교관: 물론 서양인에게는 그렇겠지만 동양인에게도 그런가요? 왜 맥아더장군을 기념하려고 하던 동상이며 기념관 등을 다 취소하고 GHQ 건물만 남겨 두고, 그 많은 편지도 불태웠겠지요. 한국에는 식민지 약탈의 배상을 경제 원조 형식으로만 주고, 한국동란에서 본 이익을 한반도 재건을 위해 준 것은 전무한 것으로 아

데 왜 그런 이득을 인정하고 감사하지 않는지요?

일본외교관: 글썽요. 저는 그 한국 전쟁 후에 태어나서 잘 모르지만 이해할 만 하네요. 그런데 한국은 일본 동북부 쓰나미 때, 원조를 해 주어 고맙습니다만, 왜 요즈음 해산물이 방사선 오염이라고 사가지 않지요?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즉각 그 수입금지령을 철회하도록 요구했지요, 아시나요?

한국의외교관: 그것은 정부의 지시가 아니라 민간차원에서 오염이 태평양에 번져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과학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은 일본정부의 소견이지요. 서양에서도 조심하는데 왜 한국이 일본 수산물을 소비해야 하나요? 분명히 아베 수상이 2020년 여름 올림픽 초청을 하면서 방사물 해상 유출을 막는 벽을 정부가 만들고 유출방지를 보장한다는 것을 보아도 위험성은 상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외교관: 그건 과학자에게 일임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은 일본과 가장 가까우면서도 가장 먼 나라 행세를 언제까지 할 것인가요?

한국의외교관: 그런 표현은 당신네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우리는 일본을 가장 가까운 이웃으로 늘 생각하고 우리 문화도 좀 즐기라고 온사마에서 비빔밥 등을 소개 하지요. 또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인보다 더 많이 가던 때가 2년전까지 인듯한데요. 동등한 국가로 서로 대하고 존중합시다.

이런 가상적인 외교관의 문답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나라의 미덕인 우의와 일본인이 본보기 자화상을 보여주는 역할을 시도 하였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은 무의식적으로 상대국을 의지하고 사대하는 태도와 심리적 사고방식을 인식하고 거듭나야 할 것으로 믿는다.

역사왜곡문제는 상대방에 떠넘기려는 우를 거듭 하지말며 일본은 역사를 어떻게 보고 해설을 하던 우리는 우리 역사를 바로보고 이해하며, 어떻게 하면 바른 역사성을 세계에 알리는 방법을 우리나라 지식인들이 해

## 미래도 과거도 어던 때

신영철 (59, 메릴랜드)

추우면 추울수록 더 좋을 때가 있었지  
동내 아이들과 얼음으로 덮인 논에서  
귀와 발가락에 얼음 박히는 줄도 모르고  
짧은 겨울 해 질 때까지 썰매 타던 때

더우면 더울수록 더 좋을 때가 있었지  
형하고 둘이서 우리 집 앞 개천에 가서  
휠철 빨가벗고 물속에 들어가 었드려  
한 팔만 짊고 자칭 ‘수영 선수’가 되던 때

가물면 가물수록 더 좋을 때가 있었지  
날마다 밖에서 굴렁쇠 굴리며 뛰어놀고  
물이 아주 얇아진 논가의 웅덩이에  
반바지도 벗고 들어가 붕어를 잡던 때

잠마 지면 질수록 더 좋을 때가 있었지  
한강이나 큰 강에 사는 큰 물고기들이  
우리 동내 개천과 논에까지도 올라와  
큰 고기 잡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던 때

미래도 과거도 염두에 없던 때

기를 기대해 본다.

사대적 사고방식을 전세대 인들은 “일제 강점기식 근성” “식민지 근성” “일제 잠재의식” 또는 “친일적 사고방식”으로 표현 하지만 문제는 한국인 젊은이들도 중국이나, 일본을 “큰 나라” (대국)로 보고 한국인이 따라가기 힘들다고만 보지 말 것이고, 반대로 감정적으로 대들려 하거나 싸워서라도 동등하게 대해 달라는 요구를 벗어 버려야한다. 이런 사고와 기대함이 무의식적 사대사상이라고 나는 본다. 이런 경향은 나 자신도 체험할 때가 있는데, 아마도 우리 민족의 식의 DNA에 들어있음을 의식하게 된다.

이러한 사대성과 심리적 의존성의 제일 좋은 치유 방법은 우리가 서로 솔직하게 이런 심리현상이 자력으로 견제 할 수 없는 심리적 방어기전임을 인식하고, 서로 일깨워 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서로 탓하거나 나무람을 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탓하지도 말며,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 힘을 모으고 서로 협력하면 수천년을 담아온 민족성이 사랑과 이해심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믿고 싶다.

## 농담 골목

미국에서 마누라를 속이고 외박을 하다가 주지사의 자리를 내어 놓아야 한 예가 있었습니다. 이태리에서는 국무총리의 자리를 내어 놓는 예도 있었구요. 아주 비싼 “사랑 예들” 이었습니다. (면)

“아내가 다이어트를 위해 승마를 해, 그런데 살이 너무 많이 빠져 고민이야”  
“야... 승마가 정말 효과가 있나 보군.”  
“아니. 아내가 빠진게 아니라 말이 10Kg나 빠졌어.” -이덕송

교회 목사가 설교 도중에 “늙을수록 적극적으로 살아야 한다” 는 말을 여러 번 하니, 할머니들이 중얼거리를 “왜 목사가 ‘노인 찢꼭지’ 이야기를 계속해 하지?” (정정수)

천주교 신부와 불교 스님이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신부가 스님에게 “소고기를 먹겠소? 아니면 돼지고기를 먹겠소?” 하니, 스님이 대답하기를 “당신이 결혼할 때 둘 다 먹겠소.” 라고 했습니다. (김세-)

나는 우리 집 사람에게 돈을 안 맡겨요.  
그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거와 같기 때문이요. (추옥)

시대 차이: 칠십 먹은 노인이 죽어서 하늘 나라로 가게 되었다.  
터덜 터덜 걷다보니 스무 살쯤 되어 보이는 젊은 놈이 어른을 보고 인사도 않고 반말을 하면서 지나 가는 것이었다.

노인은 화가 너무 나서 가는 놈을 붙잡아 호통을 쳤다.  
“야 이놈아, 너는 어미 아버지도 없나? 엇다대고 반말이야, 반말이!”  
그러자, 그 젊은이가 대답했다. “난 입진 왜란 때 죽었다. 왜?” (행)

A senior citizen goes in for his yearly physical with his wife tagging along. The doctor enters the examination room he says, “I will need a urine sample, a stool sample, and a sperm sample.”  
The man, being hard of hearing, turns to his wife and asks, “What did he say?”  
The wife yells back to him, “Give him your underwear!” (김용덕)

## 죽은자에 드리는 헌사

정 두 현(61)

당신의 죽은 몸이 의학 발전에 얼마나 큰 공헌을 했는지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당신의 흰 뼈와 굵은 몸이  
이세상의 병든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공헌을 했는지 당신은 모르시겠지만

하늘은, 하늘은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사후에 해부학 실험실에서 처음 만났지만  
아직도 우리의 인연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소아과, 내과, 외과, 마취과, 이비인후과, 안과, 정신과, 신경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물리재생학과, 방사선 치료학과,  
방사선 진단학과, 병리학과, 혈액 종양학과, --- 전문의가 되어  
세계 도처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풀마린 냄새나는 당신의 시체를 앞에 두고  
긴 묵념 후 당신의 몸 속으로, 뇌와 심장의 깊은 곳으로 들어갔고  
당신의 마음속 깊이 들어간 우리들은 의과대학을 졸업했을 때  
해부학 교실 앞에 세운 “우리는 감사한다” 를 각인한 작은 비석\*  
앞에 서서 감사의 묵념을 하고 떠났습니다.

죽은 자와 산 자의 인연은 산 자가 죽을 때까지  
천연하게 이어질 것 입니다.

\*15회 동기생들이 해부학 교실 앞 정원에 세움

작년 2013년 6월에 34년을 봉직하였던 시카고 근교의 Little Company of Mary Hospital에서 은퇴를 하고 간단하게 집을 싸고 8월 19일 터키항공편으로 아프리카로 향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을 짐작은 했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을 생각하며 부푼 희망을 가지고 대서양을 건넜다.

그동안 길고 짧은 단기선교 여행을 15년 동안 20여 개국을 방문한 경험으로 그리고 내가 가는 명성병원은 이미 4년전에 한번 들렀던 곳이기엔 두려움은 없었지만, 이제부터 오랫동안 장기 사역을 하고 정들은 집을 팔고 미국 생활을 정리하는 등 앞길에 평탄하지 않은 양을 것이라는 것을 잘 알기에 걱정이 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심정이었다. 그래도 아디스아바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병원의 이재열 집사가 나와서 반겨주며 가지고 온 짐들을 세관을 통과하는데 애로가 없도록 배려해 주어 무사히 공항을 빠져 나와 밤의 적막함을 뚫고 15분 정도 운전하여 병원에 도착하여 앞으로 살아가게 되는 방 하나 짜리 게스트 하우스에 짐을 풀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다.

도착한 첫날부터 6시에 새벽예배가 시작되므로 조용히 뒷자리에 앉아 참석하고 예배가 끝난후 남아서 기도를 하면서 앞으로의 새로운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기도하였다. 마침 도착한 날이 토요일 인지라 아침 식사를 하는 등 마는 등 마치 병원에서 모든 의료진이 참석하는 예배에 참석하여 소개를 받고 이제 제2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반갑다고 말씀을 하고 눈에 익은 현지인 의사들을 만나서 인사를 했다. 그리고는 곧 바로 CT과로 가서 현지인 방사선과 의사 Dr. Solomon을 만나서 반갑게 인사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같이 의논했다.

이 자리를 빌려 에티오피아 나라와 병원의 간단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때 공산군의 남침의 소식을 듣고 UN군을 파병한 16개 참전국 중의 한 나라로 우리나라와는 혈맹의 관계인 고마운 나라이다. 6천여명의 병력을 파병하여 122명의 전사자와 536명의 부상자를 낸 역사가 우리와는 끊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전쟁의 잿더미에서 일어나 경제적으로 부강한 나라가 된 한국과 달리, 공산화를 거친 에티오피아는 경제적으로 가장 가난한 나라중의 하나가 되었다. 에티오피아 정부에서 도움의 손길을 구하여 명성교회의 교우들과 김삼환 목사님은 그들이 가장 원하는 병원을 세워 주기로 약속하고, 에티오피아 정부가 빌려준 9만 평방미터를 99년 무상으로 임대 받아서, 그 부지에 건축을 시작하여 3년만인 2004년에 지금 병원의 건물을 완공하고 문을 열었다. 160병상 규모로 직원의 숫자가 400명이 넘고 하루에 500명 이상의 외래 환자를 돌보고 있다.

에티오피아에서는 명성기독교병원이라는(Myungsung Christian Medical Center) 이름보다는 코리안 하스피탈(Korean Hospital)로서 잘 알려져 있다.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9천 3백만 명으로 세계 13위이며, 출산율이 성인 여성 1명당 6명꼴로 인구 증가율이 높고 평균 수명은 56세로 세계 195위에 해당하며, 의사비율은 인구 만명당 0.5명으로 세계 187위이다. 비교하면 한국은 만명당 의사수 24명으로 차이가 많다. 현재 명성병원에는 원목 2명, 한국에서 온 의사 4명, 에티오피아 의사 39명, 기타 미국 등 외국에서 온 봉사하는 의사 10명 등이 수고하고 있다.

명성병원은 현대식 5개의 수술실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 현대식의 장비를 비치하고 있다. 현재로 5년 과정의 외과 수련의 과정이 PAACS (Pan African Academy of Surgery) 일환으로

에티오피아는 물론 다른 아프리카 인접나라의 의과대학 졸업생들이 와서 수련을 받고 있는 중이다. 내가 일하고 있는 방사선과를 보면 16slice CT scanner을 비롯해서, 여러대의 좋은 초음파(Ultrasound) 기계가 있고, 혈관촬영실(Angio suite)에서 특수촬영 및 중

프로그램이 있어서 병원의 모든 의사들이 한자리에 모여 배우고 새로운 정보도 교환한다. 물론 내가 도착하자마자 부탁을 받아서 필요한 사항을 Power Point를 사용하여 나도 강의를 했다.

토요일 아침에는 모든 의료진이 함



# 에티오피아 명성병원 사역

홍건(70, 시카고)

재적 원격치료 등을 할 수 있고 앞으로 곧 자기공명촬영기(MRI) 기계를 도입하게 된다. 이제껏 방문하였던 어떤 병원보다도 우수한 설비를 갖추고 있다. 에티오피아 현지인 방사선과 의사 둘이 일하고 있고 앞으로 영상 의학과 레지던트 수련의 과정을 시작하게 될 예정인데 더 많은 인원의 전문의를 필요로 하게 된다.

명성병원은 에티오피아에서 가장 실력이 있고 유명한 병원중의 하나로서 알려져 있어서, 다른 대학병원에서 고칠 수 없는 환자들이 의뢰를 하여 오기도 하고 수도에서 떨어진 시골병원에서 중환자가 실려 오곤 한다. 특히나 주말에는 많은 교통사고로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의 환자들이 줄지어 다른 병원에서 손을 대지 못하고 보내온다. 코리안 하스피탈에서 일하고 있다면 거의 모든 에티오피아인들이 존경과 선망의 눈으로 보고 특히 의사라고 하면 고맙다고 인사도 한다. 병원이 명성이 높아지면서 에티오피아 정부에서는 우리 병원에게 의과대학을 개설해서 운영해달라는 부탁을 해왔고, 2년전에 개설하여 지금 2학년 19명과 신입생 1학년 30명이 공부를 하고 있다. 특이한 것은 모든 국립의과대학은 학비가 무료이나 졸업후 3년을 무의촌 같은 시골에서 봉사를 해야 하는 조건이 따르므로 촌에서 봉사를 한 후에야 의사 면허증을 받고 수련의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된다. 그에 비하면 명성의과대학은 사립으로 일년의 학비가 미화 2천불 상당 그리고 기숙사비용에 식사대까지 포함하여 2천불을 더하면 한 학생이 일년에 도합 4천불의 교육비용을 담당해야 한다. 그러나 학교를 세울 때부터 한국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의 직계가족 중에 두 학생, 그리고 명성병원에서 5년 이상 근무한 똑똑하고 신앙이 좋은 간호사나 기사 두 명을 전등록금 면제의 혜택을 주어 입학시키고, 그 외에도 시골에서 올라왔거나 가정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장학심사 위원회를 거쳐 전액 혹은 학비의 일부를 도와주어 공부를 시키고 있다. 매일 아침 11시 반에는 전교생들이 채플에 모여서 예배를 보고 그때마다 외국에서 온 방문자를 비롯하여 병원의 의사들을 통하여 돌아가면서 신앙 간증과 함께 도전과 조언의 말씀을 듣게 된다. 앞으로 이 학교를 졸업하는 의사들은 최신 의학 지식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에티오피아와 동북 아프리카에서 좋은 양심적인 많은 지도자들이 배출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매일 아침 8시에 외과와 내과 두 방으로 나뉘어 밤중에 입원하였거나 응급 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상태를 레지던트나 당직의사의 보고를 받고 어떤 진단과 치료의 방향을 결정할 것인지 의논하고, 수요일 아침에는 Medical Grand Round로서 병원의 의사나 단기 방문한 전문의의 발표로 최신 정보를 배우고 질문을 받는 좋은

게 모여 의사 중에 간단한 간증과 말씀을 듣고 새로운 봉사자를 환영하고 떠나는 의사를 환송하는 시간을 갖는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에는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 의사들과 봉사자들이 예배를 인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다.

내가 있는 동안 매년 두 번 이상 갖는 이동진료(Mobile Clinic)로서 수도에서 5시간 떨어진 구라게 족속 가파라 지역을 2박 3일로 나갔다. 의사 6명과 다수의 간호사를 포함한 도합 30명이 병원 버스를 이용하여 문화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시골에 도착하여 제대로 시설이 되지 않은 보건소 건물을 빌려서 사흘 동안 800여명의 환자를 진료하였다. 마실 물도 없고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곳에 디젤 발전기를 돌려 초음파기계를 사용하여 생전 처음 복부 진단을 해주는 미국에서 온 의사를 보려고 장사진을 치고 기다리는 환자와 가족들에 둘러싸여 쉴새 없이 일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곳 특유의 가옥 트굴이라는 커다란 둥근 초가집에서 30명 대원이 남녀 같이 슬립핑백을 이용해서 옷도 갈아입지 못하고 좁은 공간에서 새우잠을 잤다. 집의 한구석에는 소를 비롯해서 온갖 가축들이 잠을 자고 사람은 나머지 공간에서 지내는 식이다. 밤에는 하이어나를 비롯하여 야생동물들이 위협함으로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아침에 일어나 화장실이 없으므로 야자수들이 무성한 들판에 뽀뽀이 흩어져서 간단히 용변을 보아야 했다. 물이 없으니 물병에 들은 귀한 물로 양치질을 하고 얼굴에 물을 발라 고양이 세수를 하는 등 마는 등 하고 다시 환자를 보기 시작 했다. 그동안 병원 안에서 편안하게 지내다가 시골에서 사흘을 지내면서 그러한 오지에서 수고하는 선교사들이 숭고하게 보이고 우리는 고생한다고 해야 비교적 아주 편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달았다.

내가 미국에서 34년간 병원에서 일을 해온것은 같이 일하는 10명의 방사선과 전문의들이 각자 subspecialty 분야가 다르므로 하루 종일 다른 일들을 맡아서 해왔기에, 나는 방사선과외에 핵의학학을 전공하고 매일 엑스레이와 핵의학 케이스들을 관독하는 일을 집중적으로 해왔다. 우리들 중 두 명의 젊은 의사가 Intervention 중재적 시술을 맡아 해왔기에 나는 거의 하지도 보지도 않고 지내왔다. 그런데 막상 에티오피아에 도착하고 보니 미국에서 온 전문의라고 하니 모든 기술에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으리라 믿고 환자를 보내고 도움을 청하기에 난감한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 한국에서 1년간 봉사를 하러 온 젊은 김영철 의사가 있었고, 단기로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온 Intervention 전문의인 조순구 박사가 와서 도와주었고, 그분에게 부탁을 하고 인천에 가서 단기로 연수를 한 달을 받았고 이제 2월에 다시

가서 두 달 남짓 더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번에는 서울대 후배인 이명철 박사가 있는 길병원 숙소에서 묵었고 후배인 박재형 교수에게서 사사를 받았고, 인하대 병원의 직원 식당에서 하루 세끼를 먹으면서 열심히 공부를 했다. 조 박사가 나이 70 먹은 fellow를 가르치기는 생전 처음이라고 하면서 열심히 배워주었다. 이 나이에 꾸지람도 받아 가면서 배워서 에티오피아의 환자들을 치료해 주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보람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참고로 명성병원의 여러 부대시설에 대하여 말을 하려고 한다. 넓은 부지에 담이 둘러 있고 정문에는 병원의 직원들이 24시간 드나드는 사람들을 검사하고 안전을 유지하고 있다. 게스트 하우스라는 숙소가 구관은 주로 방하나 짜리 작은 침대가 두개가 있어서 혼자 또는 두 사람이 같이 자는데, 한국에서 온 많은 젊은 봉사자들이 차지하고 있다. 우리같이 부부가 같이 왔거나 혹은 자녀들이 있는 봉사자들은 구관 2층과 3층에 침실이 두개 혹은 세 개짜리에 들고, 신관에는 침실 두개짜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 1년 이상 장기봉사자들이 묵는다. 각 방마다 화장실과 샤워로 목욕을 할 수 있고, 신관과 구관 침실 2개 이상에는 부엌이 딸려 있어 직접 조리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숙소에 식당이 있어 한국에서 온 이순재 여집사가 책임을 맡고 여러 현지인 도우미들이 한국음식을 비롯해서 맛있는 식사를 하루 세 번씩 제공을 하고 있어서, 내가 혼자 있는 동안과 집사람이 한 달간 같이 있는 동안 줄곧 식당의 밥을 먹고 편하게 지낼 수 있었다. 다만 가끔 미국의사들이 같이 있는 동안에는 아침부터 된장국에 김치가 나오므로 식사를 하는데 조금 불편을 느껴도 불평하지 않고 젓가락 쓰는 것부터 배우기 시작하여 한국음식을 잘 먹고 지낸다.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빵을 항상 준비하고 스낵케티 등이나 샐러드를 내놓으며 고려를 해주고 있다.



외래진료소 앞에서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

아무리 해도 역시 집을 떠나면 불편한 것은 있으나 병원 내에 특히 숙소에 WiFi 연결이 잘되어 미국에 있는 가족과 또 친지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고 많은 젊은 봉사자들 틈에서 외롭지 않게 지내므로 다른 선교 병원에서 겪었던 소외감은 전혀 없다. 다만 손자들을 비롯하여 가족과 멀리 떨어져서 자주 만나지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고, 편지가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소포가 한참이나 돼야 받기 때문에 누구에게 무엇을 부탁하려면 다음에 오는 인편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제 불과 넉달 정도 지내본 사람이 무슨 말을 할 수 있으랴만, 그동안 미국이나 한국에서 의사생활을 하고 은퇴한 분들은 그냥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한번 방문해보고 과연 감당할 수 있겠다고 생각하면 와서 같이 환자를 돌보고 의과대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보람있는 여생을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에티오피아 내의 핸드폰 번호 +251 921 308036 혹은 kuhn\_hong@yahoo.com 로 연락해 주시면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우에는 건강이 허락하는 한 최소 3년 아니 모든 조건이 괜찮으면 더 오랫동안 에티오피아에 머무르게 되겠으니 찾아와 주기를 바란다.

# 회비, 후원하신 동문

2013년 7월 20일 ~ 2014년 4월 15일

- 1941 이규용                                 1948 한용현 오동렬
- 1949 고영철 김지익                     1950 나수섭
- 1951 오정희 이상하                     1952 김진문 김정준 김은태 박종식
- 1953 강수상 이상봉                     1954 김갑균 이동식 이은희
- 1955 노용면 박병원
- 1956 김익창 김신형 도상탁 민병각 박상기 서상철 유호준 윤신원
- 1957 강영섭 김양호 김용진 김일훈 박건호 박종식 이동성 임종원 임종식 정구영 정진묵 한성택
- 1958 김기태 김부근 김백년 김윤범 김순옥 김석희 김수산 김시한 노인규 류치열 박용화 박호현 배영섭 유영호 이동목 이동립 이민자이종용 이장섭 이종국 이상설 이만택 이운순 이희성 최병두 최창송
- 1959 강상진 강재룡 김교안 김병구 김병석 김은섭 김한섭 나길진 박용순 반응균 방석운 서경화 신영철 신한수 이교락 이종수 최대한 최종진 최용덕 최용천 최혜숙 한승업
- 1960 권기홍 김완주 김택경 김영환 박병돈 박춘명 박형준 전희근 조재동 오신중 염극용 이순환 이덕승 이상일 임종원 임필순 한성수
- 1961 강세부 강창욱 광동린 고의걸 김영기 김영철 김유홍 박준환 박호성 서취열 손기용 안창현 양명교 이재두 이재승 이한수 이희경 이회백 장성환 정두현 정의철 조은순 최광창 최지원 최용성 최태순 황현상
- 1962 권익현 김석식 김한중 김호균 구정울 남성희 문상규 민경환 박종건 박찬형 송영두 손영진 유충국 오태요 이기범 이상무 이상복 이석우 이영웅 이용길 장병호 정정수 정 태 조명호 최영수
- 1963 권영재 권영조 고영희 김갑중 김광섭 김계운 김정일 김승태 김주용 김태웅 김택수 김현하 김현철 노인규 마동일 박승균 박세록 서경석 선종철 송용덕 신경호 신영규 양찬기 왕규현 윤영섭 윤영옥 이기환 이능석 이병준 이승현 이범세 임춘수 윤진수 장세곤 정관호 조열하 조한원 진병학 한광수 한기현
- 1964 권정덕 김용두 김원영 김태환 라찬국 박한영 신두식 안연승 양운택 유 강 유광현 유효명 유창남 윤흥기 이광신 이정은 이정필 이주영 이종오 이종성 이유찬 이흥표 임병훈 오유섭 전희택 정유석 정인태 조동준 조성준 최준희 한태진 허선행 홍선경 홍준표 선우세현
- 1965 구경희 민경탁 박수안 서좌일 손광호 이광선 이정의 이범석 이한중 이화성 정길화 전영균 조성규 지영환 최영인 채도경 채무원 홍수웅
- 1966 광일성 김진수 김용재 김우신 김의신 김충규 남궁승 민발식 이영일 이성근 장한교 정양수 조관상 최순채 한일성 허서룡 황 철
- 1967 강명식 김동수 김성철 김태웅 문경웅 박정일 유진일 이근웅 이민우 이정화 이준식 이종두 이소희 최무웅 한영수
- 1968 고남규 김경인 김명원 김주평 김영남 김희주 김 철 노영일 문광재 박정식 서진석 서윤석 송창호 이건일 유우영 이대용 임공세 안세현 정재성 차재철 최 철 홍광신 황훈규

- 1969 김병오 김종권 김창남 김홍서 도상철 송용재 안병일 엄규동 윤효운 임웅규 정한규 최종일
- 1970 노승국 송요준 여준구 유철희 조남현 조영갑 최원일
- 1971 강유구 강태수 강창홍 광승용 고기영 김제홍 김성환 김유식 김일영 김 훈 김효순 김창구 노재홍 박상효 배성호 서정자 서상현 장 철 정인용 조세진 양성훈 오동환 오상현 이원택 이희영 최수강 최영철 홍성진 황동하
- 1972 김광호 김현배 김재석 이기진 이신재 장병호 정희현 최인섭
- 1973 김천일 나두섭 문대옥 민인기 방병기 서인석 심완섭 이계석 임준형
- 1974 권철수 구재훈 이흥제 이진현     1975 김자역 박인영 전경배
- 1976 정경화 최광희                         1977 강준희 김동훈
- 1978 전영식     1979 최대용     1980 박남훈     1981 박범열     1982 차민영
- 1983 전원일     1992 조형기     1999 박성철     2000 황필규

### 31st Convention Donation

- 강신호(52)10000 김윤범(58) 100 김석식(62) 100 손영진(62) 75 정정수(62) 200 권영조(63) 300 이흥표(64) 500 허선행(64) 200 안병일(69) 200 윤효운(69) 100 광승용(71) 300 김성환(71)10000 김일영(71)3000 김유식(71) 300 김창구(71) 575 노재홍(71) 300 배성호(71) 300 윤기철(71) 700 이원택(71) 500 이창우(71) 500 홍성진(71) 300 문대옥(73) 500 서인석(73) 500 임준형(73) 100 차민영(82)1000 백지혜(88) 500 안상훈(94) 300 한석진(명) 300 서울대학병원 1000 서울대학미주재단 500 헬리우드 병원 500 제니전 500 존백 2000

### General Donation

- 이형모(49) 1000 오정희(51) 125 노용면(55) 500 김익창(56) 100 서상철(56) 25 김익창(56) 25 이동목(58) 100 한승업(59) 75 권기홍(60) 1000 강창욱(61) 175 이희경(61) 100 최용성(61) 100 정 태(62) 375 최영수(62) 100 김계윤(63) 75 이범세(63) 50 임춘수(63) 100 송용덕(63) 100 진병학(63) 100 권정덕(64) 100 김성철(67) 75 김희주(68) 100 이건일(68) 100 임준형(73) 100

### Scholarship Fund

- 이규용(41) 200 김신형(56) 200 강상진(59) 200 김은섭(59) 200 반응균(59) 100 이희경(61) 100 황현상(61) 100 민경환(62) 100 이기범(62) 125 민경환(62) 100 한기현(63) 100 라찬국(64) 100 이건일(68) 100 서정자(71) 200 임준형(73) 100 김자역(75) 500 박범열(81) 100

### Charity

- 최창송(58)1000 노인규(63) 75 조한원(63) 75 정인태(64) 50 홍선경(64) 100 이한중(65) 100 강창홍(71) 100 민인기(73) 100 방병기(73) 100 임준형(73) 100

### Green Project

- 최창송(58) 1000 김한중(62) 200 이용길(62) 200 민발식(66) 100 김주평(68) 100 김유식(71) 75 조세진(71) 150 서인석(73) 100 임준형(73) 100 박남훈(80) 125

### Sigetop MoonJip

- 김갑균(54) 300 노용면(55) 1000 김해암(58) 500 박호현(58) 200 강창욱(61) 200 손기용(61) 200 이한수(61) 200 정의철(61) 200 이혜원(61) 300 정두현(61) 200 오태요(62) 200 정정수(62) 200 정 태(62) 500 정유석(64) 200 허선행(64) 300 이한중(65) 200 이명희(66) 200 최순채(66) 200 최무웅(67) 200 서윤석(68) 250 이건일(68) 200 서 랑(69) 300 노승국(70) 200 홍 건(70) 200 김성환(71) 500 이원택(71) 300 조세진(71) 200 홍성진(71) 200 방병기(73) 200 임준형(73) 200

### Member Directory Fund

- 박근수(49) 나수섭(50) 이상하(51) 노용면(55) 김신형(56) 김익창(56) 김양호(57) 임종식(57) 임종원(57) 유상환(57) 정구영(57) 차봉희(57) 김윤범(58) 송세업(58) 이운순(58) 임영신(58) 김용덕(59) 김은섭(59) 김병구(59) 정태진(59) 이교락(59) 최혜숙(59) 박춘명(60) 박명근(60) 염극용(60) 우병혁(60) 이순환(60) 이종석(60) 한성수(60) 강창욱(61) 김유홍(61) 장성환(61) 진창건(61) 최지원(61) 최태순(61) 황현상(61) 김한중(62) 민경환(62) 박종건(62) 윤홍철(62) 이기범(62) 이태봉(62) 권영조(63) 김현철(63) 김태형(63) 이범세(63) 송용덕(63) 장세곤(63) 하상태(63) 한광수(63) 권정덕(64) 김태환(64) 양운택(64) 이흥표(64) 전희택(64) 정인태(64) 허선행(64) 홍선경(64) 이재진(65) 이한중(65) 이한승(65) 정길화(65) 채도경(65) 광일성(66) 장한교(66) 정양수(66) 최순채(66) 이소희(67) 한영수(67) 서진석(68) 서윤석(68) 서관우(68) 차재철(68) 최 철(68) 변영석(69) 이승공(69) 이용환(69) 윤효운(69) 방준재(70) 강창홍(71) 김성환(71) 김유식(71) 김창구(71) 이성길(71) 이원택(71) 오동환(71) 조세진(71) 정진우(72) 오용호(72) 문대옥(73) 서인석(73) 임준형(73) 오인환(73) 권철수(74) 박인영(75) 김대중(76) 김승관(76) 김동수(78) 전영식(78)

## 동창회비 납입 및 후원금 납입

Annual Dues & Contributions (July 1, 2013~June 30, 2014)

MEMBERSHIP DUES	\$125.00
GENERAL DONATION	\$
DONATION FOR 2013 CONVENTION	\$
SCHOLARSHIP FUND	\$
CHARITY FUND	\$
GREEN PROJECT FUND	\$
NEW DIRECTORY FUND	\$
<b>TOTAL</b>	<b>\$</b>

Name: \_\_\_\_\_ Class: \_\_\_\_\_

E-Mail: \_\_\_\_\_

Please make your check payable to SNUCMAA / Your Dues and Contributions are Tax Deductible.

\* 아직 납부치 않으신 동문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ALUMNI ASSOCIATION OF NORTH AMERICA

P.O.Box 631, Port Washington, NY 11050

Tel: (516) 365-5500 Fax: (516) 365-5501

snuclmaa@yahoo.com www.snuclmaa.us